

# 건강하고 즐겁고 운동하자!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적게 넣고  
음식에서 적게 담고  
외식에서 적게 먹고

덜 짜게 먹으면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덜 달게 먹으면  
비만, 당뇨병,  
신장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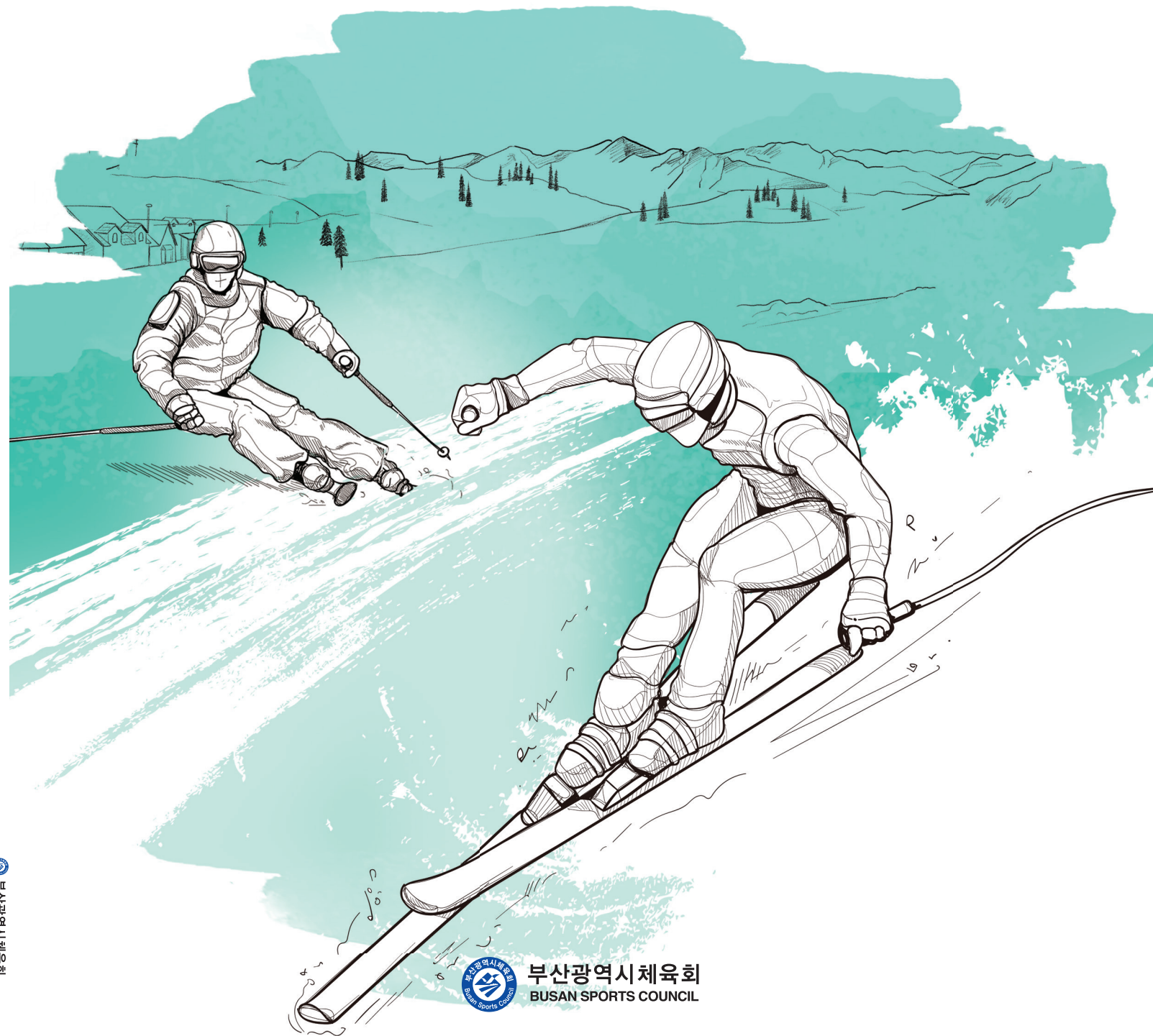
생활속 절주 실천수칙

1. 술저리는 되도록 피한다.
2.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3. 환상을 하지 않는다.
4.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5.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술, 담배) **끊고!** (소금, 설탕) **줄이고!** (다함께) **운동하자!**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운동  
「건강한 부산만들기」에 다함께 참여 합시다

문의 : 부산광역시청 건강증진과(888-3312~5), 16개 구·군보건소





## 부산체육

부산체육 2019 01+02 통권17호  
 발행일 2019년 1월 18일(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17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최유식,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T.051-500-7900 F.051-505-630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디자인 대훈기획(T.051-898-0330)

### 사람과 사람

- 02 2019년 신년사 I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 03 2019년 신년사 II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박인영
- 04 2019년 신년사 III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 05 2019년 신년사 IV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 특집

- 06 부산체육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 10 스포츠 손상 예방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
- 14 스포츠 산업의 미래 방향

### 이달의 이슈

- 18 운동은 생활! 그것이 생활체육!
- 20 부산시체육회, 시민 건강 도시 부산의 견인차 되길

### 부산의 스포츠 소식

- 22 2018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 개최
- 24 2023년 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위원회 출범
- 25 부산·가오송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대회
- 26 부산광역시체육회, 제18차 이사회 개최
- 27 영도국민체육센터 수탁협약식
- 28 끊고 즐기고 운동하자! 성과대회 시상식
- 29 2019년 기해년 부산광역시체육회 시무식
- 30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 32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 34 영도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36 강서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37 구·군체육회 소식
- 48 회원종목단체 소식
- 50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스포츠 뉴스

- 52 건강소식
- 54 올림픽준 확산을 위한 「제30기 KSOC 올림픽아카데미」 개최
- 55 「제1회 IOC 선수경력프로그램(ACP) 워크숍」 개최
- 56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시도·시군구체육회 워크숍 개최  
2018 학교체육진흥포럼 개최
- 57 남북 NOC위원장, 'ANOC 시상식(Awards) 2018' 수상

### 이달의 스포츠

- 58 스키 & 스노보드

### 문화 속으로

- 62 스키 & 스노보드 영화

# 01 신년사

New Year's Greeting

2019년 기해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 02 신년사

New Year's Greeting

부푼 기대와 새로운 희망을 안고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박인영**



시민이 건강하게 시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도시 만들기에 아낌없는 열정을 쏟고 계신 시,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수 및 지도자를 비롯한 부산체육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체육단체 통합 이후 체육회가 엘리트 선수 육성에서 시민 건강을 책임지며 나아가 도시경쟁력에 기여를 하는 등 역할과 기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체육회장으로 추대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부산체육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부산시장배 슈퍼컵 종목을 3개 종목에서 7개 종목으로 확대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일상화, 부산오픈국제남자챌린저대회,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경기대회 등 명품 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스포츠 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아우를 수 있는 체육발전 방향 모색과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체육의 붐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 생활체육 인구 증가가 전문체육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최대 축구 잔치인 2023 AFC 아시안컵 유치 등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올해부터 개최되는 LPGA 정규투어와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부산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누리는 체육 복지를 위한 구·군별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적극적 확충으로 소외 계층 없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산이 스포츠로 행복해지고 스포츠를 통해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원대한 목표를 세웠든지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든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 나갔으면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현실이 상상을 압도하는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뚝뚝 뭉친 시민의 힘으로 꿈쩍도 하지 않던 지방권력 구조에 크나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철옹성 같은 장벽이 무너지면서 한반도가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의 촛불에서 시작된 시민의 힘들이 모여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결과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제8대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 속에 오랫동안 반복해온 잘못된 관행들을 하나둘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새로운 부산을 만들라'는 시민의 명령에 따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기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밤낮없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성과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꿨는데도 내 삶은 변한 게 없다는 말씀을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소통은 넓게, 고민은 깊게, 책임은 높게, 행동은 빠르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식과 원칙, 합리와 균형, 협치와 혁신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삼겠습니다.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 서민과 약자를 위한 의회가 되어 시민들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고, 우리 사회 곳곳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부산을 웃게 만들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시민들에게는 어깨를 내어주고, 서민들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며,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도 찾아내면서 시민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3 신년사

New Year's Greeting

부산체육의  
힘찬 도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 04 신년사

New Year's Greeting

존경하는 체육가족 및 국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희망찬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새로운 출발선에 선 부산체육의 힘찬 도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부산체육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의 산실인 부산광역시체육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가시는 오거돈 시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회원종목단체장님, 그리고 체육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일 년,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부산 시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장이 마련되었고,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활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부산체육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부산 시민들이 스포츠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오랫동안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평소 꾸준한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 습관 개선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는(eye) 스포츠에서 시민이 참가하는 실천(doing)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건강체력 향상과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신나는 체육수업을 운영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많은 체육 활동에 참가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부산체육인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올 한 해 체육가족 및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 풍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가득했던 '스포츠의 해'였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는 러시아축구월드컵대회,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며 스포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평화와 화합을 불러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시작으로 남과 북이 하나로 힘을 모아 단일팀을 구성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올림픽대회의 가치를 빛내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단일팀의 성과는 비단 대회에만 그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 남북체육교류로 이어지며 남북의 화합을 넘어 전 세계에 평화의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올림픽대회의 숭고한 정신이자 인류가 지향하는 순수한 가치인 평화의 계승이며 인류사에 길이 남을 위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국체육대회가 100회를 맞습니다. 한 세기에 가까운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전국체육대회는 국내 스포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체육의 산실이자 우리 민족이 아끼고 계승해 나가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근대체육 100년의 역사를 증명하는 전국체육대회는 새로운 선수층의 유입이 적어지고 유망주 발굴에 애로를 겪는 등 어려운 현실에 당면해 있습니다. 100년 전 전조선야구대회로 시작된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대회가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체육가족 및 국민 여러분, 대한체육회는 2019년에도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두루 이루시고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 풍요가 가득하길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PECIAL 01

# 부산체육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Future Development  
Of Busan Sports*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책개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대희 박사

### 들어가며

2016년 기존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어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육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체육단체의 이원화(전문체육VS생활체육)로 스포츠 시스템 단절에 따른 학교체육의 관심 부족, 전문체육의 저변 약화, 은퇴선수의 일자리 부족, 생활체육의 서비스 미흡 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육단체를 통합하였고, 이를 통하여 평생 즐기는 스포츠, 국격을 높이는 스포츠, 선순환 하는 스포츠, 존중받는 스포츠를 통하여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를 위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8년 3월 '스포츠 비전 2030'을 발표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편적 복지 차원의 스포츠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2017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에서도 한국근대체육 100년, 기대수명 100세,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시점에 맞춰 스포츠·관광·산업의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으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산 체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노후·낙후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 체육활동의 시민 참여의식을 제고하며, 레저·여가 수요증가에 따라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높은 스포츠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등 부산 체육정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부산체육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체육단체 통합과 새 정부 출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등으로 체육계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그에 따른 체육정책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체육정책들의 방향은 체육활동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스포츠 복지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시스템으로 스포츠클럽 환경을 정착하고, 공정·도전·협동·통합의 스포츠 가치를 중심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추진되는 체육정책 하에서 과연 부산체육의 미래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까? 미래의 부산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부산체육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부산체육의 현재는?

2017년 11월 1일 '부산 체육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약 8천억 원을 투입하여 목표연도인 2022년도에는 생활체육 참가율을 56.1%에서 70%로, 동호회 참가율은 11.4%에서 20%로 올려 생활체육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도시로 나아가고, 2023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성적을 8위에서 4위로 끌어올리고, 주민 1만 명당 공공체육시설 수를 3.42개소에서 4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스포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시민 삶의 질 제고로 도시경쟁력을 갖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로 부산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만 가능한 것인데, 통합체육회 출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스포츠 환경 조성에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특히 모든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진 생활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의 역할이나 시체육회의 역할, 구·군체육회 역할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이행방안이 미흡한 현실이다.

또한, 종합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통합된 시체육회를 중심으로 15개 구체육회와 1개 군체육회가 현장의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구·군체육회의 역량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스포츠가 사랑받고, 체육인이 존중받는 사회조성을 위해 스포츠 분야의 부조리(조직사유화, 승부조작, (성)폭력 등) 근절을 통해 스포츠의 공정 가치를 확산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시민 눈높이에 맞춰 정의롭고 공정한 스포츠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여 이 또한 역시 많이 미흡한 현실이다.

### 부산체육의 미래는?

그렇다면 부산체육의 미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와 함께 시체육회와 15개 구체육회 1개 군체육회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 통합 이후 시체육회와 구·군체육회는 부산체육 진흥을 위한 중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의 체육정책에 발맞춰 지역주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스포츠클럽 중심의 체육단체 운영과 체육동호인 조직에서 엘리트 선수까지 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어 체육단체 통합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주민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스포츠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시체육회와 구·군체육회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과 특성을 반영한 체육동호인 및 스포츠클럽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종목단체에서는 리그대회 운영이나 전문인력을 양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시민들이 지역에서 편리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나 시민이 원하는 종목별, 수준별 표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유아나 청소년이 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유아체육 프로그램 및 방과 후(학교 밖)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어르신 및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스포츠를 부산시민이면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스포츠복지 개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기반의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종목별, 단계별 지도자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통한 스포츠클럽에서 선수양성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목별 코칭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도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통해 지도자의 자질을 강화하여야 한다.

선수수급 역시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학교운동부 선수의 부족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심의 선수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내 스포츠클럽에서 꿈나무 및 청소년 대표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영재 발굴·육성과 공부하는 학생선수 양성 등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선수의 발굴·육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엘리트 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스포츠과학의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스포츠과학을 기반으로 지역 내 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과 스포츠클럽 선수 경기력 측정, 체육영재 발굴·육성 등을 위해서는 스포츠과학을 통한 밀착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지역스포츠과학센터'와 '국민체력100'을 최대한 유지하여 스포츠과학 기반의 우수선수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시민이 체육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학교체육 시설 개방, 지역 내 유휴공간 등의 활용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 근린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시설정보, 체육동호인 및 스포츠클럽 현황, 지도자 및 대회정보, 강습정보 등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휴대폰 앱이나 컴퓨터의 웹 기반의 쌍방향의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 부산체육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

앞에서 부산체육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부산체육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체육단체 통합 이후 이제 시체육회는 단순히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대회를 개최하고, 구·군체육회와 종목단체를 관리하는 체육단체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하여 행복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시스템의 제공 주체가 되어야 한다. 스포츠를 통하여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와 체육회가 지향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와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복지, 건강 관련 부서 등과 시민 수요 등 고려하여 시민 모두의 스포츠가 되기 위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체육정책과 이번 민선 7기의 새로운 시장의 정책이행을 스포츠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편적 복지 차원의 스포츠복지 도시로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세부적인 계획 및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과 더불어 지역주민과 접점에 있는 구·군체육회와 시체육회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과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행계획 등을 보다 세밀하게 실효성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부산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소외계층과 함께, 남과 북이 함께 스포츠를 통해 어울림으로써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공정·협동·도전 등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시민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부산만의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부산체육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SPECIAL 02

# 스포츠 손상 예방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

*Data-Based  
Scientific Approach*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김태규 교수

운동손상, 운동상해, 스포츠상해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스포츠 손상(sports-related injury)은 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을 의미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의료진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모든 근골격계(musculoskeletal) 손상으로 정의된다.

## 스포츠 활동 시 발생하는 스포츠 손상

전문운동선수는 이러한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 훈련 및 시합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운동수행능력(performance) 저하를 경험하기도 하며 치료 및 재활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기도 한다.

또한 스포츠 손상이 건강악화 및 영구적 장애로 이어져 은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IF) 등과 같은 스포츠 국제기구에서는 운동선수가 건강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스포츠 손상의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은 손상을 예방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루 평균 9~10시간 훈련을 하는 전문운동선수에게 크고 작은 스포츠 손상은 당연한 것일 수 있으며, '2015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에서 생활체육 참가자 중 57.3%가 부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생활체육 참가자의 스포츠 손상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2017년 '국민생활체육 참가 실태조사'에서 59.2%가 평균 1.9개 종목의 스포츠 또는 운동에 주 1회 이상 규칙적인 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건설,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지원 확대 등과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생활체육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생활체육 참가자의 스포츠 손상위험도 또한 증가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포츠 손상은 원인에 따라 급성(acute) 손상과 과사용(overuse) 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발병 빈도에 따라 새로운(new) 손상과 재발성(recurrent) 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 손상은 한 가지의 특별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을 나이의 증가, 근력 (muscle strength)과 유연성(flexibility) 부족 등과 같이 선수 또는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닌 내재적 위험요인(intrinsic risk factor)과 좋지 못한 경기장 상태와 날씨, 부적합한 운동도구와 신발, 과도한 운동량 등 외재적 위험요인(extrinsic risk factor)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근력과 유연성, 과도한 운동량 등 변경이 가능한(modifiable) 내재적 및 외재적 위험요인을 수정하여 손상 위험도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 적정 운동량과 강도 설정이 중요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으로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등과 같은 철저한 준비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 적절한 운동 도구 사용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내재적 및 외재적 위험요인을 수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 손상 예방을 위한 접근으로 개인의 체력(fitness)과 운동수행능력(performance)에 적합한 운동량(volume)과 강도(intensity)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적당한 운동량과 강도는 심폐 지구력(cardio-respiratory endurance) 향상, 근력 및 근지구력(muscular endurance) 향상 등 개인의 건강상태와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부족하거나 과도한 운동량과 강도는 오히려 건강상태와 체력을 저하시키고 스포츠 손상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스포츠에 참가함에 있어서 적절한 운동량과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절대적인 운동량과 강도가 아닌 개인의 체력과 운동수행능력을 고려한 상대적인 운동량과 강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 과학의 발달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

축구, 필드하키 등 국내의 팀 스포츠에서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라 불리는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여 선수 개인의 움직임과 활동량을 측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선수의 컨

디션(condition)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선수 개인의 체력과 운동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스포츠 손상 발생률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체력과 운동수행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적정 운동량과 강도 설정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스포츠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 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체력에 대해 최근 1주 동안 총 운동량의 비율이 0.8-1.3에 포함된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적정 운동량이라고 주장하였다. 생활체육 참가자의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과 과학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를 활용하여 운동을 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 걸음 수뿐만 아니라 심박수, 체온과 같은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수집하는 것이 쉬워졌고, 이러한 장비가 적정 운동량이나 강도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운동량과 강도 설정에 있어 다양한 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경험적 접근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개인 맞춤형 접근이 가능한 현실이며, 미래에는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 care) 기술발달로 스포츠 손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disease)을 개인적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정보 수집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에 대한 타당성(validity)과 정확성(accuracy)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운동량과 강도 설정을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algorithm)의 내적·외적 타당도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생활체육 참가자와 전문운동선수가 더 건강하게 스포츠 및 운동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PECIAL 03

# 스포츠 산업의 미래 방향

*Future of the Sports Industry*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포츠산업학부  
안창규 교수

최근 스포츠 산업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서 활발히 전개되면서 스포츠 산업은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스포츠 산업은 ICT, AR·VR과 같은 기술적 접근은 물론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도 적합한 미래의 유망산업으로서 각광받

고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었다. 즉 스포츠 산업이란 스포츠 활동에서 요구되는 용품과 장비, 스포츠시설과 서비스, 스포츠경기, 이벤트, 스포츠강습 등과 같은 유·무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유통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 개념화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 새로운 분야로 뻗어가는 스포츠 산업

국내의 스포츠 산업은 “용품산업”, “시설·공간산업”, “정보·서비스산업”의 3가지 분야로 각각 성립되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각 분야가 중복된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최된 88서울올림픽대회나 최근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2002년 FIFA월드컵축구대회,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국내의 각종 톱 스포츠리그 시합 등의 스포츠 이벤트는 “용품산업”, “시설·공간산업”, “정보·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 스포츠 산업은 몇 가지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민의 스포츠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분류에서 그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복합적인 산업으로부터 구성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둘째, 스포츠 참가활동은 적절한 장소와 입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제한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간 및 입지 중시형 산업이다.

셋째,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를 즐기고 그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시간 소비형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스포츠 산업은 쾌락과 재미가 전제되는 엔터테인먼트가 중심개념으로서 스포츠 참가자가 최종 소비재 혹은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직접 접촉함으로써 성립되는 산업이다.

다섯째, 흔히들 스포츠는 각본 없는 한 편의 드라마라고 얘기하듯이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을 증진할 기회를 제공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 대리만족과 감동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 주요 비즈니스 콘텐츠로 부각

이상의 특성을 토대로 발전해온 스포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기술과 규칙을 공유하고 전 지구적인 공통 문화로서 광범위한 시장기반을 가지며,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발전해온 스포츠를 중심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콘텐츠로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이

유로 우리 정부에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다음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요한 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스포츠 산업은 많은 국가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이다. 스포츠 산업은 월드컵대회와 올림픽대회와 같은 빅 이벤트의 개최를 통해 스포츠 비즈니스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경제적 파급력과 같은 효과적인 면에서 크게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관련 분야의 많은 일자리 창출을 수반한다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포츠 산업

또한 스포츠 산업은 제조업, 서비스,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된 복합 산업으로 기능할 때,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도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산업이다. 2011년 일본 총무성에서 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타 산업과 비교하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포츠 산업은 상업(약 1.5배), 의료·복지(약 1.68배)보다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 산업은 타 산업과 꾸준히 연계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감으로써 파급효과를 보다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료품, 의료 복지 등과 연계하여 보다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으로서 타 산업과 융·복합을 통하여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산업은 미디어적인 가치를 포함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스포츠 이벤트는 각종 미디어의 중요한 방송 콘텐츠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러 메가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장 그리고 스포츠 스타는 그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스포츠 복지라고 하는 용어 사용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참가를 통해 그 어떤 산업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국민복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의 신장은 스포츠에 의한 건강수명의 연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생활습관병·인지병 등의 예방 프로그램 등 향후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충분한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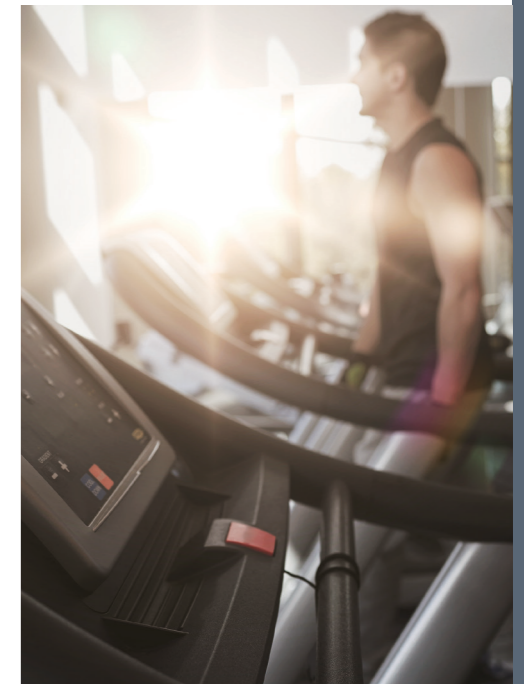
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나 고령자 스포츠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서 의료·건강이나 도시계획,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산업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이상 언급한 내용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6 스포츠 산업백서』와 間野 외 1인 감수 『스포츠 비즈니스의 미래2018-2027』(2017, 日経BP社)을 일부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스포츠라고 하면 문화성 혹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미 우리와 친숙한 용어이나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은 부족하며 그 시장은 한정적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다양화해짐에 따라서 여행, 음식, IT, 의료 등의 타 산업과 복합화된 새로운 스포츠 비즈니스가 이미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새로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스포츠 산업의 창출 또한 기대된다. 그 때문에 각 영역에서 지니고 있는 노하우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기업과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스포츠 산업은 성숙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3가지 글로벌 규모의 메가트렌드를 통해 정리할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미래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바로 IT(정보기술)화에 의한 기술혁신과 비즈니스의 급속한 아시아 시프트 현상, 그리고 다양성(diversity)과 국경을 초월한(borderless) 변혁이 이에 해당된다.

### 삶의 질 영역으로 점차 확대

스포츠 산업은 의료·건강, 지역창생, 근무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그 결과 이제까지 스포츠산업과는 인연이 없었던 많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 함께 더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머지않은 시기에 스포츠 산업 환경은 크게 변화할 것이다. 네트워크 서비스나 SNS의 발달, IoT나 AI의 보급과 같은 IT화, 중상류층 증가에 따른 인구동태의 변화, 그리고 증가하는 의료비의 억제나 연령, 성별, 근무환경 등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움직임은 미래 우리에게 제공되어질 귀중한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부여와 함께 산업발전 전략수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운동은 생활! 그것이 생활체육!

# SPORT FOR ALL



티브로드 보도제작국  
김희수 PD

## 나를 감동시킨 생활체육인



부산광역시족구협회장기 우수팀 초청 족구대회 중계가 있던 날. 10월이었지만 차가운 기운과 강한 바람이 불어 '이 날씨에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중계방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족구협회 전무이사님께 전화를 했다. 뜻밖에도 전무이사님은 활기찬 목소리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경기합니다."라며 오히려 중계방송팀이 괜찮은지 걱정했다. 그날 중계방송은 강한 바람 탓에 약간의 고생을 했지만 화면에 담긴 족구팀 선수들의 표정은 날씨를 무색케 하는 활기로 넘쳐났다.

2년 전, 케이블방송사로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다 주민들이 자신의 경기 모습을 TV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생활체육 중계프로그램 '티브로드 스포츠(Tbroad Sports)'를 기획했다. 스포츠 전문채널이 늘어나면서 프로 스포츠 중계방송과 전문체육의 방송은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생활체육, 비인기 종목은 방송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2년에 걸쳐 배드민턴, 탁구를 비롯한 여러 비인기 종목까지 중계방송하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열정은 나를 감동시킬 정도로 대단했다.

## 건강을 위한 운동에 재미를 더한다면 금상첨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관련 뉴스나 기사에 관심을 갖게 된다. 2017년 기준 '국민건강지수'에서 부산은 1점 만점에 0.526점으로 특별·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산시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2017 국민생활체육 참가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75.6%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유지 방법으로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꼽은 비율은 19%로 '식사 및 휴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최근 1년간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와 '월 3회 이하'의 응답 비율이 40.8%나 됐다. 한편 체육활동 경험이 있는 종목으로는 걷기가 40.8%로 가장 많았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또 운동 방법에 있어서도 동호회 활동이나 단체에 속해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단지 건강을 위한 운동은 재미가 빠지기 마련이다. 건강뿐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운동을 위해선 체육시설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한 생활체육이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몰라서 못하는 운동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생활체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를 활용한 모든 체육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에는 73개 회원종목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생활체육 중계방송을 하다 보니 몇몇 종목은 상당한 회원 수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었다. 반면 한 명의 회원이 절실한, 작은 관심이라도 필요한 종목도 눈에 띄었다.

프로경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에도 인기-비인기 종목이 확연한 모습이다.

생활체육은 참가자들이 함께 몸을 던져 체력을 단련하고 그 속에서 스포츠 정신과 친목을 키워내는 것이다. 경기를 지켜보고 승패를 중요시 하는 프로경기와는 다른 점이다.

건강을 위해, 여가를 위해 운동을 하고 싶은 시민은 분명 있을 것이다. 운동의 종목보다 동료들과 함께 몸을 부딪치고 싶은 시민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방법을 몰라 그 희망을 잠재우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시체육회가 생활체육을 더 많이 홍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인기 종목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비인기 종목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도 필요하다.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참가 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운동은 운동이 아닌 생활이 되어야... 그것이 '생활체육'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영도구와 연제구가 선정되고 노후화된 구덕야구장이 철거 후 생활체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부산시의 시민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인 셈이다.

운동의 장(場)을 마련하는 노력에 이어 많은 시민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나가야 하겠다. 운동은 '시간이 나면', '건강이 나빠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활체육인 것이다.

2018년의 사자성어 다사다망(多事多忙). 일이 많아 몹시 바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건강과 생활의 활력이 될 운동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하여야겠다.

# 부산시체육회, 시민 건강 도시 부산의 견인차 되길



필자가 스포츠부 기자로 근무할 때였으니 아마도 2004년 가을쯤일 게다. 부산체육계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유는 충북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이 거둔 성적 때문이었다. 종합 성적 역대 최하위인 13위, 체육계 뿐 아니라 부산시민까지 충격에 빠졌다. 불과 4년 전인 2000년까지만 해도 경기도, 서울시 등과 함께 '빅3'의 위상을 자랑하던 부산이었으니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2년 전인 2002년에는 아시아인의 스포츠 대추제인 부산아시아경기대회까지 개최한 도시 부산의 전문체육이 갑자기 추락했으니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었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대한민국 올림픽 참가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딴 '레슬링 영웅' 양정모를 배출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서 만리장성을 허문 '핑퐁 남매' 유남규, 현정화를 배출한 '스포츠 도시' 부산의 자존심은 바다까지 떨어졌다.

'쇼크'가 너무 컸던 탓일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에 단 한 명의 선수단도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타 시도 선수단은 물론 전 국민적인 비웃음까지 샀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상주의에 빠져 폐회식을 보이콧한 부산선수단은 경기에서 지고 매너에서도 졌다"는 지적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금은 단순한 '해프닝'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말 그대로 안팎으로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책임의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부산시체육회 쪽으로 겨워졌다. 부산AG를 준비하고 개최하느라 적잖은 힘을 소진한 부산시체육회였지만, 불과 2년 후 빚어진 '전국체육대회 불상사'로 인해 수술대에 올려졌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인적 쇄신 요구가 빗발쳤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체육회는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다.



국제신문  
이승렬 편집부국장

인구 대비 체육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현실 등 부산 전문체육의 후퇴는 분명히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체육회는 희생양이 됐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 부산 선수단의 전국체육대회 성적은 나아졌을까? 지난해(2018년) 전북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은 종합순위 12위에 그쳤다. 솔직히 말하자면 '도긴개긴'이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반응은 판이하다. 시민이나 지역 언론 그 누구도 부산시체육회를 나무라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실 부산선수단의 전국체육대회 성적은 이제 시민들의 주된 관심 대상에서 멀어져 있다. 그럼 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기에 이런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난 것일까? 필자가 15년 전의 부산체육계의 '슬픈 자화상'을 애써 끄집어낸 까닭이다.

이른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시대에 걸맞게 체육에 대한 시민의식도 바뀌었다. 대형 이벤트에 참가한 지역 엘리트 선수단의 성적보다는 개인이 '즐거는' 스포츠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도시의 순위보다는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 순위가 더욱 중요하다. 이 같은 변화에 도시 체육 정책 결정과 실행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체육회가 보조를 맞춰야 함은 당연하다. 부산의 전국체육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부산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부산의 건강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은 예사롭지 않다. 국민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2017년 기준 '국민건강지수'에서 부산은 1점 만점에 0.526점(전국 평균 0.54)으로 특별·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또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2017년 시·도별 생명표'를 보면, 부산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81.9년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짧았다. 시민 건강 위기가 미래 세대의 기대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언론 역시 이런 소식에 더욱 긴장감을 갖고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고민은 '스포츠가 복지다'라는 확고한 철학과 신념의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일상 속에서 쉽고 편하게 자주 운동을 즐기는 시민이 많을수록 도시의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건강 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맥이 닿아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에 1달러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보건 당국이 한국인 사망의 최대 배후세력으로 꼽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인 운동 부족과 영양 과잉섭취를 해결하려고 발 벗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뇌혈관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고혈압 2조3343억 원을 포함해 13조6,000억 원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그래서 결국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을 주인공으로 부산시체육회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2016년 2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결합을 통해 그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진 만큼 시체육회의 '콘셉트(Concept)' 재설정이 중요해졌다. 그 길은 전문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1인 1 스포츠클럽 갖기 운동' 등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골자로 한 '부산시 체육발전 종합계획'을 시민 생활 속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부산시체육회의 새로운 콘셉트라 할 것이다. 최근 베스트셀러인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전망한 올해의 10대 트렌드 중 첫 번째가 바로 '콘셉트를 연출하라(Play the concept)'였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보는 스포츠에서 실행 스포츠로의 확실한 전환이라는 콘셉트를 동시에 완비한 부산시체육회가 올해부터는 진정한 시민 건강 도시 부산의 견인차로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부산체육 발전의 미래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2018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 개최



체육 활동상을 함께 정리하고 새해 부산체육 발전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2018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은 한 해 동안의 부산체육 활동상을 함께 검토하고 2019년 부산체육 전개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을 밝고 건강한 체육 도시로 만들기 위해 헌신해주신 유공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 ◇◇◇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단체 격려 ◇◇◇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24일(월) 11시 호텔농심 허심청 2층 대청홀에서 「2018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 행사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산체육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계 인사와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시장표창, 체육회장상, 감사패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이번 시상식 시범공연은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품새시범과 부산광역시치어리딩협회의 치어리딩 시범으로 꾸며져 수상자에 대한 체육인들의 축하 마음을 전하였다. 이어진 시상식은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부산

내년에는 축구 A매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등 대규모 스포츠 대회 성공적 유치와 LPGGA(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 투어, 2020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 부산체육 미래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 ◇◇◇

스포츠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이며, 도시의 활력과 매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의 핵심과제이다. 이러한 부산체육의 미래발전을 위해 유공자 시상식을 발판으로 체육분야 관계자 및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스포츠의 감동을 부산에서 이어 가기 위한 2023년 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위원회 출범

부산광역시시는 지난 12월 3일(월) 11시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부산 전국체육대회 유치위원회 위원, 선수 및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체육대회 부산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다짐하였다.

부산유치위원회는 정현민 행정부시장과 부산시의회 김부민 경제문화위원장,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체육 분야와 언론계, 시민단체, 자원봉사 분야 등 시민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의 부산 전국체육대회 유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전국체육대회 유치 계획에 대한 시의 경과보고와 부산 전국체육대회 유치위원회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시민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은 이미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가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못해 부산체육계는 물론 시민들이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로 시설 인프라 정비 및 전문선수 훈련 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한 삶 도모로 우리 시가 활기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 생활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한마당 부산·가오승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대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대만 가오승 일원에서 개최된 「부산·가오승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대회」에 야구, 태권도 등 2개 종목 25명 선수단이 참가해 승패를 주고받으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었다.

이번 생활체육국제친선교류대회는 대만 가오승시에서 진행되었으며 선수단은 총 2개 종목(야구, 태권도)의 친선경기에 참가하였다. 이번 국제 스포츠 교류 경험을 통해 부산선수단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현지 문화와 역사탐방 등 학습과 친목의 기회도 가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대만 가오승시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 5일(수)부터 8일(토)까지 진행되었으며 양국 선수단 75여 명(부산선수단 25명, 가오승선수단 50명) 참가하여 우호증진은 물론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대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 교류와 문화 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교류전을 정례화 하여 더욱 많은 동호인들이 국제 교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제18차 이사회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10일(월)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18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제29회 부산시민체육대회 개최 결과를 포함한 4건의 보고사항과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7건의 심의사항을 의결하였다.

보고사항으로는 제29회 부산시민체육대회 개최 결과, 2018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개최 결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대책방안,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관련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심의사항으로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보선(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각종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순수단체종목 성과훈련비 지급 규정 제정(안),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기타 토의로는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부산광역시체육회 박가서 부회장은 “참석한 모든 임원들이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에도 스포츠를 통해 부산의 생동적인 모습을 부산시민들에게 보여주자.”며 당부의 말씀과 함께 이사회를 마무리하였다.



## 영도구민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도국민체육센터 수탁협약식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영도구청은 지난 12월 14일(금) 영도구청 구청장실에서 ‘영도국민체육센터 수탁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위탁 운영하게 되는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1월 27일(화) 수탁 단체로 선정되어 2018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맡게 되었으며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영도구청은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체육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용회원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영도국민체육센터는 2009년 12월 개관해 수영(25m 7레인)과 GX(Group Exercise), 헬스, 스쿼시, 골프 등 약 월평균 3,500여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으로 영도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체육복지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영도구민들이 건전한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자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 장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영도를 대표하는 문화·체육시설로서 다양한 문화공연과 스포츠 강좌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책임지는 명실공히 지역 체육복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하층	수영장, 헬스장, 안내데스크		
1층	체조실, 탁구장, 체능1·2실	4층	식당, 매점
2층	스쿼시장, 스크린골프장	전화	영도국민체육센터 051)405-0050
3층	골프연습장, 접수처	홈페이지	http://www.ydsports.org



## 건강한 부산 시민행동 프로젝트 끊고! 즐기고! 운동하자! 성과대회 시상식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17일(수)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끊고! 즐기고! 운동하자! 성과대회'에서 건강 생활실천기관 중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지난해 3월 가정, 학교, 기업체, 단체, 언론 등 다양한 소속 대표자들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강생활실천 다짐을 선언하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상하반기 1,674개 기관, 24,274명이 부산광역시 공개모집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 계획을 세워 100일간 실천하는 범시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였다. 건강실천 자가진단 방법을 통해 모은 건강 나눔 실천저금통 적립금(15,189,375원)은 취약계층 및 불우이웃을 위해 굿네이버스,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되었다.

'끊고 즐기고 운동하자!' 프로젝트는 부산광역시의 부진한 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민 모두가 스스로 참가하는 범시민 건강생활실천 운동으로 중요한 건강 결정요인인 개인의 건강 행태를 개선하여 건강지표 향상을 통해 '건강한 부산'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전개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상 속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한 소소한 실천들이 모이면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며, 이것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밑거름이자 원동력"이라며 "건강한 부산은 부산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며 시민 모두가 참가하여 실천한다면 부산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시민행동 프로젝트 끊고 즐기고 운동하자! 수상자 명단

구분	구분	평가결과	비고
구군	기관	북구보건소	최우수
	기관	수영구보건소	우 수
개인·가정·단체·기관	민간인	박정연(금정구)	최우수
	민간인	오수자(서구)	우 수
	민간인	주수정 가족(해운대구)	장 려
	기관	노틀담유치원	최우수
	기관	가야송림어린이집	우 수
	기관	장산초동어린이집	우 수
	기관	제일어린이집	장 려
	기관	민락초등학교	최우수
	기관	동외과학대학교	우 수
	기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장 려
	기관	(주)경성리츠	최우수
	기관	김병준레디스홀부외과의원	우 수
	기관	부산은행 시청지점	장 려
	기관	부산환경공단	최우수
	기관	부산지방병무청	우 수
	기관	부산시설공단	우 수
	단체	부산광역시체육회	장 려
	단체	만덕3동 통장협의회	장 려

## 새해 첫 업무 시작 2019년 기해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식

2019년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다. 기해년은 황금돼지의 해로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상징한다.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열어나가는 이 시점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힘찬 각오를 다지며 한 해를 시작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월 2일(수) 오전 9시 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동준 사무처장을 비롯한 체육회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새해 첫 업무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의미를 담아 '2019년 사무식'을 가졌다.

새해를 맞이한 만큼 전 직원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각오를 다졌고 체육회 사무처장 및 본부장을 비롯해 직원 모두 상호 덕담과 악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날들의 희망을 가득 품은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올 한 해도 직원들 간에 관계를 잘 만들어 서로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체육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직원들의 돈독한 단합과 봉사정신이 부산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 01 꿈나무체능단 소식

꿈나무체능단은 지난 11월 9일(금) 부산 삼정 더 파크 동물원에서 2학기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견학은 어린이 도서관 영 상으로만 보던 동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며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의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지난 11월 20일(토)부터 21일(일) 양일간 한화리조트에서 1박2일 꿈나무체능단 겨울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체능단은 협동정신 및 사회성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으며, 단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였다.



## 02 하반기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받아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 었다. 그러나 이를 잘 시행하지 않는 기업들 가운데는 아직도 성희롱, 성폭 력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부산국민체육센터 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 03 현장 체육지도자 재난 시 매뉴얼 숙지 및 모의 훈련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수업 장마다 부착하여 사고예방을 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우 고 사고발생 시 회원들이 신속 정확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 모의 훈련 을 실시하였다. 이번 모의 훈련을 통해 아주 작은 안전사고라도 사전에 예 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 수영 프로그램

※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06:00~06:50	새벽수영	A반 월.수.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이상
		B반 화.목.토		
		C반 월~금	성 인 : 67,100 노 인 : 52,800	
07:00~07:50 08:00~08:50	생활수영	A반 월~금	성 인 : 67,100 청소년 : 60,500	청소년 이상
		B반 월~금		
09:00~09:50	어머니수영	A반 월.수.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여성
		B반 화.목.토		
10:00~10:50	웰빙수영(격일)	A반 월.수.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여성
		B반 화.목.토		
11:00~11:50	웰빙수영(매일)	C반 월~금	성 인 : 67,100 노 인 : 52,800	성인 여성
		A반 월.수.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14:00~14:50	실버수영	화.목(토)	44,000	65세 이상만
15:00~15:50	성인수영	B반 월.수.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누구나
		A반 월.수.금	39,600	
16:00~16:50	돌고래수영	A반 월.수.금	39,600	초1~6년
		B반 화.목(토)	33,000	
17:00~17:50	하마수영	A반 월.수.금	39,600	초1~6년
		B반 화.목(토)	33,000	
18:00~18:50	직장인수영(격일)	A반 월.수.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누구나
		C반 월~금	성 인 : 67,100 청소년 : 60,500	
19:00~19:50 20:00~20:50	직장인수영(매일)	D반 월~금	성 인 : 67,100 노 인 : 52,800	청소년 이상
		A반 월.수.금	성 인 : 67,100 노 인 : 52,800	
21:00~21:50	야간수영	토	25,300	성인 누구나
15:00~15:50	아쿠아 로빅	토	성 인 : 60,500 노 인 : 52,800	성인 여성
12:00~12:50		A반 화.목.토		
15:00~15:50 11:00~11:50		B반 화.목.토		
12:00~12:50		C반 월.수.금		
13:00~13:50		D반 화.목.토		
13:00~13:50		F반 월.수.금		
18:00~18:50	E반 화.목(토)	45,000	성인 누구나	
06:00~07:30 08:00~09:30 10:00~11:30 17:00~18:30	월 자유수영	A반 월~금	성 인 : 53,900 노 인 : 33,000 청소년 : 46,200	청소년 이상
		B반 월~금		
		C반 월~금		
		D반 월~금		
19:00~20:30	F반 월~금			

※ 실버수영, 돌고래, 하마, 아쿠아로빅은 토요일 자유수영으로 대체

## 생활체육 프로그램

※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06:00~22:00 토 16:50까지	헬스교실	월~토	성 인 : 47,300 노 인 : 38,500 청소년 : 38,500	청소년 이상
06:00~06:50 07:00~07:50 08:00~08:50 09:00~09:50 10:00~10:50 18:00~18: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배드민턴	A반	성 인 : 45,100 노 인 : 38,500	청소년 이상
		B반		
		C반		
		D반 월~목(강습)		
		E반 월.수.금(강습)		
		F반 화.목.토(강습)		
		G반 화.목.토(강습)		
		H반 화.목.토(강습)		
		I반 화.목.토(강습)		
		J반 화.목.토(강습)		
18:00~18:50 19:00~19:50 20:00~20:50	탁구	A반 월~목(강습)	성 인 : 41,800 노 인 : 38,500	성인 이상
		B반 월.수.금(강습)		
		C반 화.목.토(강습)		
16:00~16:50	어린이배드민턴	월.수.금	38,500	초3~6년
16:00~16:50	농구	A반 화.목	33,000	초1~6년
17:00~17:50	농구	B반 월.수.금	초 등 : 38,500 청소년 : 44,000	초4년~중등
		A반 화.목.토		
06:30~07:20 09:00~09:50 09:00~09:50 10:00~10:50 14:00~14: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필라테스	B반 화.목.토	성 인 : 50,600 청소년 : 45,100 노 인 : 38,500	청소년 이상
		C반 화.목.토		
		G반 월.수.금		
		D반 화.목.토		
		F반 월.수.금		
		H반 월.수.금		
		A반 월.수.금		
		E반 월.수.금		
		I반 월.수.금		
		J반 월.수.금		
15:00~15:50	실내축구	화.목	33,000	7세~초3년
16:00~16:50	발레	화.목	33,000	5세~7세
17:00~17:50	음악줄넘기	화.목	38,500	초등학생
17:00~17:50	어린이발라드	월.수.금	38,500	7세~초등생
10:00~10:50 18:00~18:50	에어로빅	A반 월.수.금	50,600	성인 누구나
		B반 월~금		
16:00~16:50	발라드	월.수.금	성 인 : 50,600 노 인 : 38,500	성인 누구나
		화.목		
19:00~19:50	댄스스포츠	초급 화.목	성 인 : 39,600 노 인 : 38,500	성인 누구나
		중급 화.목		

## 요가 프로그램

※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06:00~06:50	새벽요가	A반 월.수.금	주2일반 38,500	청소년 이상
07:00~07:50		B반 월.수.금		
08:00~08:50		C반 화.목		
10:00~10:50	웰빙요가	A반 월.수.금	주3일반 38,500	청소년 이상
		B반 화.목		
11:00~11:50 14:00~14:50	생활요가	A반 월.수.금	성 인 : 50,600 노 인 : 38,500 청소년 : 45,100	청소년 이상
		B반 화.목		
15:10~16:00	아로마요가	A반 월.수.금	성 인 : 50,600 노 인 : 38,500 청소년 : 45,100	청소년 이상
		B반 화.목		
17:10~18:00	직장인요가	A반 월.수.금	성 인 : 50,600 노 인 : 38,500 청소년 : 45,100	청소년 이상
		B반 화.목		
19:00~19:50	직장인요가	C반 월.수.금	성 인 : 50,600 노 인 : 38,500 청소년 : 45,100	청소년 이상
		D반 화.목		
20:00~20:50	직장인요가	화.목		

## 문화 프로그램

※ 재료 및 교재비 별도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14:00~14:50	속독교실	토	25,000	초등~중학
14:00~14:50	바둑교실	A반 토	30,000	초1~초6
		B반 토		
15:00~15:50	신나는 과학교실	금	30,000	6~초3
15:10~16:00	동화구연	월	25,000	5~7세
15:10~16:00	블록놀이(아이링고)	수	30,000	6~7세
15:10~16:00	지니맥	A반 수	30,000	유치부
		B반 수		
16:10~17:00	댄스스포츠	수	30,000	유치부

문의전화 : 051-243-5959

#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 01 신나는 겨울방학! 실내수영장으로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수영 특강반을 운영한다. 북구국민체육센터 2층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방학특강반은 4개 반 25명씩 편성 운영된다. 이번 겨울방학 수영특강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운영되며, 물에 대한 적응훈련, 수영장 에티켓, 발차기, 호흡법, 영법교육 등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북구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방학 특강을 통해 기초체력을 증진해 건강한 겨울을 나고, 방학기간 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당부했다. 수영장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북구국민체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 051-365-7070



## 02 제1회 부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수영대회 금·은·동1 획득

부산북구스포츠클럽 수영꿈나무선수단은 지난 11월 25일(일) 사직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회 부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수영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동안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훈련과 강습을 진행한 결과,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꿈나무선수단은 개인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



#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 수영 성인 주5회(68,000) / 주3회(44,000) / 주2회(33,000) 청소년 주5회(60,000) / 주3회(38,000) / 주2회(25,000)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굿모닝	06:00-06:50	초급	
		중급	
		고급	
	07:00-07:50	초급	
		중/고급	
		연수	
	08:00-08:50	초/중급	
		연수	
		초급	
돌고래	09:00-09:50	중급	초급(25명)
		고급	
		연수	
	10:00-10:50	초급	중급(25명)
		고급	
		연수	
	11:00-11:50	초급	고급(25명)
		중/고급	
		연수	
거북이	15:00-15:50	성인조합	연수(40명)
	17:00-17:50	성인조합	
굿나잇	19:00-19:50	초급	
		중/고급	
		연수	
	20:00-20:50	초급	
		중급	
		고급	
	21:00-21:50	초급	
		중급	
		고급	

\*강습인원 15명 이하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아쿠아로빅 주2회 44,000원 주3회 5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아쿠아로빅	12:00-12:50	초급	50명
		중급	
		고급	

## 방과후 수영 어린이 46,000원 유아 30,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어린이 수영	12:00-12:50	어린이종합반	초급(25명) 중급(30명) 고급(30명) 연수(30명)
		유아(월수금)	
	14:00-14:50	초급	
		중급	
17:00-17:50	고급		
	18:00-18:50	초급	
중급			
고급			

## 주말 수영 어린이 35,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주말수영	토, 일 11:00-11:50	주 2회	주 2회
핀수영	토, 일 09:00-09:50		

## (월)자유수영 어린이 30,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8,000원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월)자유수영	1부 08:00-08:50	월~금 (주 5회)
	2부 12:00-13:50	
	3부 18:00-18:50	

##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자유수영	평일 8:00-8:50	월~금	
	12:00-12:50		
	18:00-18:50		
	주말 1부 9:00-11:50	주말/공휴일	
	2부 13:00-17:50		
이용요금	12:00-13:00 수질정화시간(입장불가)		
	회원	비회원	
	성인 2,300원	성인 3,300원	
	청소년 1,5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200원	어린이 2,200원	

## 스튜디오 운동

프로그램	강습시간	정원	(월)회비
타바타(월수금)	06:00-06:50	25명	성인 : 50,000원
	06:00-06:50		성인 : 40,000원
요가(월~금)	07:00-07:50		성인 : 57,000원
	19:00-19:50		청소년 : 50,000원
중바로빅(월수금)	09:00-09:50		성인 : 47,000원
	09:00-09:50		성인 : 42,000원
파워로빅(월~금)	10:00-10:50		성인 : 57,000원
	11:00-11:50		청소년 : 50,000원
파워다이어트로빅(월~금)	20:00-20:50		성인 : 57,000원
	21:00-21:50		청소년 : 50,000원

## 스트레칭 운동

프로그램	강습시간	강습일	정원	(월)회비
건강스트레칭(A)	12:00-12: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건강스트레칭(B)	19:00-19: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바디 체인지(A)	15:00-15: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바디 체인지(B)	16:00-16: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시간	정원	(월)회비
배드민턴(월~금)	12:00-12:50	30명	30,000원
	15:00-15:50	30명	30,000원
	16:00-16:50	30명	30,000원

## 헬스클럽

프로그램	운영시간	(월)회비
건강클리닉	평일 06:30-21:50	성인 : 46,000원
	주말, 공휴일 19:00-17:50	청소년 : 41,000원

## 감면할인 대상자

할인율	대상자(중복할인 불가)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기초수급자
30%	만 65세 이상인 자
15%	12개월 등록시
10%	6개월 등록시
5%	3개월 등록시

\*감면적용 대상자는 접수 시 관련 서류 첨부을 하여야 할인적용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용안내

센터 운영시간	평일	06:00~
	주말(공휴일)	09:00-18:00
센터 접수기간	기초회원	매월 21일~23일
	신규회원	매월 24일~마감까지
센터 정기휴관	매주 첫째주/셋째주 수요일	
문의전화	TEL	051-365-7070
	FAX	051-365-8070

# 영도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수영 프로그램

### 성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6시]굿모닝수영	주6일 성인	06:00~06:50	월~토(주6일)	65,000
	A반 B반	성인	06:00~06:50	월수금 45,000 화목금 45,000
[7시]생활수영	주6일 성인	07:00~07:50	월~토(주6일)	65,000
	A반 B반	성인	07:00~07:50	월수금 45,000 화목금 45,000
[8시]새아침수영	주6일 성인	08:00~08:50	월~토(주6일)	65,000
	A반 B반	성인	08:00~08:50	월수금 45,000 화목금 45,000
[9시]몸짱수영	주6일 성인	09:00~09:50	월~토(주6일)	65,000
	A반 B반	성인	09:00~09:50	월수금 45,000 화목금 45,000
[10시]웰빙수영	주6일 성인	10:00~10:50	월~토(주6일)	65,000
	A반 B반	성인	10:00~10:50	월수금 45,000 화목금 45,000
[11시]웰빙수영	주6일 성인	11:00~11:50	월~토(주6일)	65,000
	C반 D반	성인	11:00~11:50	월수금 45,000 화목금 45,000
[14시]어울림수영	주5일 성인	14:00~14:50	월~금(주5일)	61,000
	E반 F반	성인	14:00~14:50	월수금 45,000 화목 35,000
[16시]어울림수영	주5일 성인	16:00~16:50	월~금(주5일)	61,000
	E반 F반	성인	16:00~16:50	월수금 45,000 화목 35,000
[18시]직장인수영	주5일 성인	18:00~18:50	월~금(주5일)	61,000
	A반 B반	성인	18:00~18:50	월수금 45,000 화목 35,000
[19시]저녁수영	주5일 성인	19:00~19:50	월~금(주5일)	61,000
	A반 B반	성인	19:00~19:50	월수금 45,000 화목 35,000
[20시]저녁수영	주5일 성인	20:00~20:50	월~금(주5일)	61,000
	C반 D반	성인	20:00~20:50	월수금 45,000 화목 35,000
[21시]아간수영	주5일 성인	21:00~21:50	월~금(주5일)	61,000
	A반 B반	성인	21:00~21:50	월수금 45,000 화목 35,000

### 60세 이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13시]실버건강수영	13시 만60세 이상	13:00~13:50	월~금(주5일)	61,000
	A반	13:00~13:50	월수금	45,000
	B반	13:00~13:50	화목	35,000
[14시]실버건강수영	C반	14:00~14:50	월수금	45,000

###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아쿠아로빅	A반	성인	12:00~12:50	월수금 60,000
	B반		12:00~12:50	화목토 60,000
	B-1반		12:00~12:50	토 25,000
	C반		15:00~15:50	월수금 60,000

### 어린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유아 수영	소그룹	B반	만4~6세	17:00~17:50	화목 60,000
		A반	초등	16:00~16:50	월수금 35,000 화목 30,000
	고래	A반	초등	17:00~17:50	월수금 35,000 화목 30,000
		B반	초등	18:00~18:50	월수금 35,000 화목 30,000
	돌고래	A반	초등	18:00~18:50	월수금 35,000 화목 30,000
		B반	초등	15:00~16:40	토 30,000

### 월 자유수영 프로그램(1회)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자유수영	A반	성인	07:00~09:00	월~금(주5일) 55,000
	B반		14:00~16:00	월~금(주5일) 55,000
	C반		20:00~21:30	월~금(주5일) 55,000

※ 중간에 쉬지 않고 25m를 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화를 목적으로 걷거나 뛰는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 체육 프로그램

### 골프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골프 스쿨	A반	중학생 이상	06:00~07:30	월, 화, 목, 금 - 지도 수, 토 - 연습
	B반		07:30~09:00	
	C반		09:00~10:30	
	D반		10:30~12:00	
	E반		12:00~13:30	
	F반		13:30~15:00	
	G반		15:00~16:30	
	H반		16:30~18:00	
	I반		18:00~19:30	
	J반		19:30~21:00	
	K반		21:00~22:30	

### 탁구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탁구교실	C반 D반	성인	09:00~10:30	월, 화, 목, 금 - 지도 수, 토 - 연습
			10:30~12:00	
			18:00~19:30	
	F반 G반 H반 I반	청소년 이상	19:30~21:00	
			21:00~22:30	
			12:00~13:30	

### 댄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댄스스포츠	A반	성인	20:00~20:50	월수금 45,000
	B반		21:00~21:50	
시니어(실버)댄스스포츠	중급	50세 이상	13:00~13:50	화목 30,000
	초급	14:00~14:50	화목 30,000	

# 영도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다이어트킥(태보)	C반	성인	18:00~18:50	월수금 45,000
다이어트 방송댄스	A반 B반	청소년 이상	19:00~19:50	월~금(주5일) 55,000 청소년 50,000
			20:00~20:50	
	C반	성인	10:00~10:50	월~금(주5일) 55,000
어린이 방송댄스	-	초등	17:00~17:50	월수금 40,000
줌바댄스	A반 B반 C반 D반 E반 F반	성인	11:00~11:50	화목 40,000
			19:00~19:50	
			20:00~20:50	화목 50,000
			21:00~21:50	
			11:00~11:50	
			21:00~21:50	
파워로빅	A반 B반	성인	09:00~09:50	월~금(주5일) 55,000
			10:00~10:50	
벨리댄스	A반 B반 C반	성인	11:00~11:50	월수금 45,000
			12:00~12:50	월수금 45,000
			19:00~19:50	월수금 45,000

### 즐거미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음악즐거미 교실	초급	초등	16:00~16:50	월수금 40,000
			17:00~17:50	
	토		10:00~10:50	토 25,000

### 헬스 프로그램(1회 입장)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헬스교실	청소년 이상	06:00~22:00	월~금 토(06:00~17:00)	성인 : 44,000 청소년 : 39,000

### 요가-필라테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새벽요가	A반	06:00~06:50	월수금	40,000
굿모닝요가	A반	08:00~08:50	월수금	40,000
웰빙요가	A반 B반 B-1	성인	주5일	월~금(주5일) 55,000
			월수금	40,000
			화목토	40,000
			화목	35,000
			화목	35,000
다이어트요가	A반	성인	주5일	월~금(주5일) 55,000
			월수금	40,000
힐링요가	A반 B반	성인	주5일	월~금(주5일) 55,000
			화목	35,000
자세교정요가	A반	성인	주5일	월수금 55,000 청소년 : 45,000
			월~금(주5일)	55,000
파워요가	A반 B반	청소년 이상	주5일	월수금 40,000 청소년 : 35,000
			화목	35,000
몸짱요가	A반	성인	주5일	월~금(주5일) 55,000 청소년 : 45,000
			월수금	40,000 청소년 : 35,000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활력요가	A반	성인	주5일	20:00~20:50 월~금(주5일) 55,000 청소년 : 45,000
			월수금	40,000 청소년 : 35,000
햇요가	A반 C반 D반 E반 G반	성인	주5일	19:00~19:50 월~금(주5일) 95,000 청소년 : 85,000
			11:00~11:50	월수금 75,000 청소년 : 65,000
			19:00~19:50	화목 50,000 청소년 : 40,000
			19:00~19:50	월수금 75,000 청소년 : 65,000
			20:00~20:50	화목 50,000 청소년 : 40,000
필라테스	A반 A-1반 C반 B반	성인	10:00~10:50	화목 35,000
			10:00~10:50	화목토 45,000
			19:00~19:50	화목 35,000
			20:00~20:50	화목 35,000

### 스쿼시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웰빙스쿼시	A-1 A-2 C-1 C-2 E-1 E-2	청소년 이상	09:00~09:50	화목금 70,000 청소년 : 60,000
			09:00~09:50	월~금 100,000 청소년 : 90,000
			10:00~10:50	화목금 70,000 청소년 : 60,000
			10:00~10:50	월~금 100,000 청소년 : 90,000
			11:00~11:50	화목금 70,000 청소년 : 60,000
			11:00~11:50	월~금 100,000 청소년 : 90,000
체력증진 스쿼시	E-1 E-2	초등 3년 이상	18:00~18:50	월수금 70,000 청소년 : 60,000 어린이 : 50,000
			18:00~18:50	월~금 100,000 청소년 : 90,000 어린이 : 80,000
직장인 스쿼시	A-1 A-2 C-1 C-2 E-1 E-2	청소년 이상	19:00~19:50	월수금 70,000 청소년 : 60,000
			19:00~19:50	월~금 100,000 청소년 : 90,000
			20:00~20:50	월수금 70,000 청소년 : 60,000
			20:00~20:50	월~금 100,000 청소년 : 90,000
			21:00~21:50	월수금 70,000 청소년 : 60,000
			21:00~21:50	월~금 100,000 청소년 : 90,000

### 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항공드론	초등	16:00~16:50	화	30,000
발레교실	유아	유아	16:00~16:50	화목 33,000
	A		초등	17:00~17:50

※ 재료비 별도

문의전화 : 051-405-0050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 헬스 프로그램

시간	요일	정원	금액
06:00~22:00	월~금	500명	성 인 : 44,000원 청소년 : 38,500원
09:00~18:00	토요일		
09:00~17:00	공휴일		

## ○ 수영 프로그램

요일	시간	프로그램	금액	정원					
월~금	08:00~10:00	자유수영	성 인 : 48,400원 청소년 : 44,000원	20					
	10:00~12:00								
	13:00~15:00								
	15:00~17:00								
	17:00~19:00								
월~금	06:00~06:50	새벽수영A	성 인 : 60,500원 청소년 : 52,800원	100					
		초급							
	07:00~07:50	새벽수영B			100				
		초급							
	09:00~09:50	건강수영A				50			
		초급							
	10:00~10:50	건강수영B					50		
		초급							
	11:00~11:50	건강수영C						50	
		초급							
	14:00~14:50	건강수영D							50
		초급							
18:00~18:50	저녁수영A	60							
	초급								
19:00~19:50	저녁수영B		100						
	초급								
20:00~20:50	저녁수영C			100					
	초급								
21:00~21:50	저녁수영D				100				
	초급								
월.수.금	15:00~15:50					아쿠아로빅	어린이 : 44,000원	60	
	16:00~16:50					어린이수영_강습			
월~금	17:00~17:50					어린이수영_강습	어린이 : 초등학생	50	

\* 평일 어린이 일일 입장 불가

##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요일	시간	스튜디오1	스튜디오2	금액
월~금	06:10~07:00		모닝요가	성 인 : 55,000원 청소년 : 49,500원
	09:00~09:50	에어로빅		
	10:00~10:50	보라-중비댄스	예쁜몸매 바른자세요가	
	11:00~11:50	필라테스	웰빙요가	
	18:10~19:00		필라테스	
	18:30~19:20		파워요가	
	19:20~20:10	에어로빅		
	19:30~20:20		다이어트요가	
	20:20~21:10	에어로빅		

## ○ 일일입장

구분	요일	시간	대상	금액
수영장	월~금	08:00~19:00	청소년 이상	성 인 : 3,300원 청소년 : 2,700원 어린이 : 2,200원
	토요일	09:00~18:00	누구나	
	공휴일	09:00~17:00		
배드민턴	화.수	08:00~10:00 13:30~15:00	청소년 이상	성 인 : 2,200원 청소년 : 1,500원 (고등학교 이상 입장가능)
	월.목	08:00~10:00		
	토.공휴일	09:00~12:00		
헬스	월~금	11:00~15:00		
	토.공휴일			

\* 수영장 일일입장 제한 : 토.공휴일 11:30~13:00(수질정화시간)  
체육관 일일입장 제한 : 체육관 프로그램운영 행사 및 대관(051-974-0472)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접수기간

구분	기간	시간	
재수강	현장	20일~24일까지	06시~21시
	인터넷		
신규	현장	25일~말일까지	06시~21시
	인터넷		

회원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11:30~13:00는 일일입장 및 등록이 제한됩니다.

\* 프로그램 등록 정원의 50% 미달 시 폐강됨

### ※ 할인제도 안내 ※

- 이용료의 50% 할인 [확인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50% 할인 [복지카드(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전체 등급)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제급~3급까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0% 할인 [증명서 제시]-매달 제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장기수강 할인  
- 3개월 5% 할인, 6개월 10% 할인, 12개월 15% 할인
- 경로우대 30% 할인 [본인 신분증 지참]  
- 만 65세 이상
- 다자녀가족 10% 할인 [다자녀 카드 소지자]  
- 2000년 이후 출산 및 입양으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와 그 자녀
- 2종목 이상 등록 시 한 종목 10% 할인
- 수영여성회(만 12세~만 54세) 1개월 이상 장기 등록 시 10% 할인
- 강서구 주민 20% 할인 (주민등록 지참)
- 중복할인 불가

## ○ 문의

인터넷	<a href="http://sports.bsgangseo.co.kr/">http://sports.bsgangseo.co.kr/</a>
전화	051-974-0472/0473

## ○ 운영시간

평 일	06:00~22:00	공휴일	09:00~17:00
토요일	09:00~18:00	휴 관	매주 일요일

# 구·군체육회 소식

## ○ 동구체육회

### 01 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1일(일) 부산중학교 운동장에서 「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동구민들의 동대향전으로 입장식 퍼레이드, 레크리에이션 및 이어달리기, 경품추첨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의 순위는 동별 특색을 알리는 퍼포먼스,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등 종합점수를 통해 결정되었다. 대회결과 1위 초량 2동, 2위 수정 4동, 공동 3위 좌천동-초량 1동-초량 6동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동구민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으며, 활기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



### 02 노한성장사배 동대향 씨름대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1일(일) 부산중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씨름장에서 「2018년 노한성장사배 동대향 씨름대회」를 개최하였다. 동구민들은 뜨거운 열정과 함께 화려한 씨름기술을 선보였으며 전문선수처럼 우수한 경기력을 보였다. 씨름대회 경기결과 1위 초량 2동, 2위 초량 3동, 3위 초량 1동-범일 2동이 차지하였다.



### 03 동구체육인의 밤 개최

동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7일(월) 노블리아뷔페에서 한 해 동안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체육회 임원진 및 내빈, 학교 관계자, 선수, 생활체육 동호인 180여 명을 대상으로 「동구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8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19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 구·군체육회 소식

2018년 11월 18일

### 01 제40회 영도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8일(일) 영도 마린축구장에서 영도구축구협회 9개 클럽 동호인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0회 영도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영도구 축구 발전에 이바지한 동호인 및 임원의 오랜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대회 결과 1위는 축우축구회, 2위는 향도축구회가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축구 동호인들 간 유대감 형성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02 2018년 영도구체육회 이사회 및 송년회 체육인의 밤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8일(수) 영도 목장원 오비스타홀에서 국회의원, 시의원, 체육회 임원 및 종목회장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영도구체육회 이사회 및 송년회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먼저 이사회는 임원 29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도구체육회 규정(안) 제정 및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관한 건이 부의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개최된 송년회 및 체육인의 밤 행사는 영도구체육회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8년 유공자 표창 시상식도 같이 진행되었다. 유공자 표창은 생활체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 1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로는 국회의 원상-박정희 부회장, 부산광역시공로패-한영익 전 수석부회장, 영도구청장-장필성 이사, 임민지 지도자, 영도구체육회장상-축구협회 정병철, 탁구협회 이옥남, 테니스협회 정계자, 태권도협회 하태환, 영도경찰서감사장-유미자 이사, 장인표 이사, 김민지 지도자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체육꿈나무지원 부문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평초등학교 김성훈 양궁선수와 청동초등학교 김소연 체조 선수에게 상을 수여하였으며, 장애인체육지원 부문에서는 장애인파 크골프 조성태, 이상조, 전영익 선수가 수상하였다.



## 구·군체육회 소식

2018년 12월 2일

### 01 2018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해양레포츠 체험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일(일) 거제 씨월드에서 6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해양레포츠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벨루가 수중공연, 돌핀 프레젠테이션, 돌핀 수영체험, 파충류 학습관 체험, 직업체험 강의, 거제 조선해양문화관 관람 등 다양하고 유익한 스포츠 체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돌고래와 파충류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었다. 이어서 방문한 거제 조선해양문화관에서는 4D영상 체험을 통해 평소 접할 수 없는 조선소에 관해 공부하는 자리가 되었다.



### 02 제11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탁구대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12월 9일(일) 초연근린공원 체육관에서 「제11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동호인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닦아온 기량을 발휘하며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대회결과 남자단식 A 3부 우승-김마련, 정낙현, 김상훈, 안용호 선수가 차지하였으며 남자단식 A 4~5부 우승-김진하, 김팔대, 황갑주, 장독호 선수가 차지하였다. 또한 남자단식 A 6~7부 우승-한병득, 이길영, 송윤제, 이기호 선수가 차지하였으며, 장려-송규선 선수가 차지하였다. 남자단식 6~7부 우승-송윤제, 이기호 선수가 차지하였으며, 장려-채규영, 김외진, 신재교 선수가 차지하였다.



2018년 11월 3일

### 01 제1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 플라잉디스크대회 개최

지난 11월 3일(토)부터 4일(일)까지 양일간 낙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00여 명의 플라잉디스크(Flying Disc)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 플라잉디스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플라잉디스크 동호인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친선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02 제14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배구대회 개최

지난 11월 10일(토) 사직보조경기장에서 150여 명의 배구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제14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배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배구 동호인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대회결과 남자부 1위 배정A, 2위 신기, 3위 배정B, 여자부 1위 동래, 2위 매화B, 3위 금강, 4위 나인플러스, 5위 매화A가 차지하였다.



## 03 2018년 4/4분기 이사회 개최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0일(목) 동래 일원에서 구청장, 체육회 이사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 4/4분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회 취임 및 사임 현황보고, 정관 일부개정(안) 등 규정 제·개정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임직원들은 이사회 이후 만찬을 즐기며, 동래구 체육 발전과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01 2018 어린이체능교실 개최

남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8일(일) 김해 대동승마랜드와 장유 롯데워터파크에서 남구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2018 어린이체능교실」을 개최하였다. 대동승마랜드에서는 승마에 대한 기본 이론수업 이후, 참가인원을 나누어 승마 체험과 동물 먹이주기 체험을 통해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롯데워터파크 물놀이 체험을 끝으로 어린이체능교실을 마무리하였다.



# 구·군체육회 소식

## 02 제4차 정기이사회 개최

남구체육회는 지난 12월 5일(수) 남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체육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이사 및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남구체육회 규약 개정, 남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정, 남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탈퇴 규정 제정, 남구체육회 이사회 운영 규칙 개정에 대해서로 논의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 01 제18회 족구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난 12월 2일(일) 북구 족구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제18회 족구협회장기 대회」가 양산 황산공원 족구장에서 700여 명의 족구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결과 1위 웰메이드A, 2위 웰메이드B, 공동 3위 천무B·대천B팀이 차지하였다.



## 02 제5회 무에타이(Muaythai)협회장배 대회 개최

지난 12월 8일(토) 북구 무에타이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제5회 무에타이협회장배 대회」가 만덕 태한 무에타이 특설링에서 50여 명의 무에타이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1위 덕천클럽 무타봇 김태규 선수, 2위 만덕클럽 무에타이홀릭 박시영 선수가 차지하였다.



## 구·군체육회 소식

### 03 북구 볼링협회 주관 볼링대회 개최

지난 12월 23일(일) 북구 볼링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북구 볼링협회 주관 볼링대회」가 만덕 현대레포션에서 100여 명의 볼링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결과 1위 쿨 클럽, 2위 또바기 클럽이 차지하였다.



### 01 제19회 해운대구청장기 태권도겨루기대회 개최

지난 12월 8일(토) 기장 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제19회 해운대구청장기 태권도겨루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종합 1위-화신탈권도, 종합 2위-해운대태권도, 종합 3위-센텀화신탈권도가 차지하였다. 이날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학부모들의 응원에 힘입어 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 02 해운대구 체육인의 밤 개최

해운대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0일(목) 컨싱턴리조트 해운대 18층 대연회장에서 「해운대구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체육회 임원, 내빈, 종목 대표자 등 9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2018 체육활동 영상 상영 및 성과보고, 족구협회 장학금 전달, 유공자 시상 및 만찬이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9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었다.



### 03 2018 가족과 함께하는 One Day 스키교실 개최

해운대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2일(토)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2018 가족과 함께하는 One Day 스키교실」을 개최하였다. 해운대구민을 대상으로 총 40명이 참가하였으며 안전 교육과 강습을 받은 후 스키교실이 진행되었다. 이번 스키교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01 제10회 사하구청장배 탁구대회 개최

지난 12월 2일(일) 오전 8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사하구청장배 탁구대회」가 강서실내체육관에서 동호인 및 내·외빈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A부 단체전 4강 공동우승 에이스A, 에이스D, 에이스E, 승학클럽이 차지하였으며, B부 단체전 4강 공동우승 에이스A, 에이스, 혜성C, 클러버 클럽이 차지하였다.



### 02 2018년 사하구체육회 송년의 밤 개최

2018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인 지난 12월 21일(금) 사하구 일원에서 「2018년 사하구체육회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사하구체육회장을 비롯하여 체육회 이사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었다.



### 01 2018 금정구청장배 태권도대회 개최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8일(일) 스포원 실내체육관에서 「2018 금정구청장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금정구 관내의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겨루기, 품새 등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멋진 승부를 겨루었다.



### 02 금정구체육회 4분기 이사회의 및 송년의 밤 개최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0일(목) 골든웨딩타운에서 「금정구체육회 4분기 이사회의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임원, 이사 등 많은 내빈들이 참가해 축하하였다. 1부 행사는 표창장 시상과 우수시상금 전달, 우수종목 발전지원금 전달로 진행되었고, 2부 행사는 경과보고, 심의사항 순으로 마무리되었다.



# 구·군체육회 소식

강서구체육회

## 01 2018 생활체육교실 '자연과 함께하는 청소년 스포츠 체험'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8일(일) 순천만 국가정원 및 습지에서 「2018 생활체육교실 '자연과 함께하는 청소년 스포츠 체험」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일상에서 쌓인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 02 2018 회원단체 임원단합 연수대회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12월 6일(목) 「2018 회원단체 임원단합 연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강서구체육회의 임원, 이사 및 종목협회에서 다수 참가하여 가덕도 등대길 일대를 트레킹(Trekking)하며 친목을 도모하였고, 앞으로 강서구체육회의 백년대계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제구체육회

## 01 연제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수련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8일(일) 체육회 임원, 종목별협회, 문화체육과 관계 직원, 생활체육지도자 총 54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강진에서 「연제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수련대회」를 개최하였다.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백련사 트레킹을 시작으로,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와 순천 낙안 민속마을 관광지를 둘러보며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02 연제구체육회 연제구댄스스포츠협회장배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5일(토)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5층 강당에서 9개 동아리 80여 명의 동호인을 대상으로 「연제구댄스스포츠협회장배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결과 종합 1위 연제 문화원 동아리, 종합 2위 연산 동아리, 종합 3위 나이스 동아리에서 차지하였다.



# 구·군체육회 소식

## 03 연제구체육회 2018년 체육인의 밤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0일(목) 다이아몬드호텔 대연회장에서 체육회 임원들과 각 종목별 회장, 사무장, 클럽 회장 등 22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공로가 많은 종목별 유공자 18명에게 연제구청장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한 해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2018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연제구체육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연제구체육회의 안녕과 발전을 전하며, 올해에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 01 2018 수영구청장배 태권도 대회

지난 11월 17일(토) 수영구민체육센터에서 「수영구청장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수영구체육회장, 이사, 직원 및 구청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가하였다. 경기방식은 3가지 종목(품새, 겨루기, 줄넘기)으로 진행되었으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선의의 경쟁으로 화합을 이루는 장이 되었다. 특히 수영구민들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의 태권도 실력을 겨루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대회가 되었다.



## 02 2018 수영구 국회의원배 탁구한마당 대회 개최

지난 11월 18일(일) 수영중학교에서 「2018년 수영구 국회의원배 탁구한마당 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광역시 탁구협회에서 주최하고 수영구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만 18세 이상의 수영구민들이 개인전(250명), 복식(90팀), 실버혼성복식(20팀)에 참가하였다. 선수들 외에도 유재중 국회의원, 수영구체육회장, 구의원, 직원 및 구청 관계자도 함께하며 분위기를 한껏 활기차게 하였다. 경기종목으로는 남자부는 E부, A부, 1부~7부로 이루어졌으며, 여자부는 A부, 1부~7부로 진행되었다. 이날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품추첨도 진행하며 경쟁과 친목 그리고 화합 등이 조화를 이룬 대회가 되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03 2018 수영구체육회 12월 이사회 및 송년의 밤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0일(목) 호텔 아쿠아펠리스에서 수영구체육회장 등 내빈을 대상으로 「2018 수영구체육회 12월 이사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체육회 황대성 친목회장에 대한 전국체육대회 유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와 신임이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 그리고 한 해 동안 이사회 참석률에 대한 개근상 수여, 1년 동안의 수영구체육회 활동 사항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였다. 그 후에는 수영구체육회 직원들의 깜짝 이벤트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참석한 인원 모두 기념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올해 수영구체육회가 나아갈 방향과 발전을 기약하며 송년의 밤을 마무리하였다.



사상구체육회

### 01 제24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제24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지난 11월 18일(일) 삼락생태공원 축구C-D구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총 8개 클럽, 14개 팀 450여 명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토너먼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룬 끝에 청년부 최다득점상은 덕포클럽의 안성호 선수, 최우수선수상에는 엄공클럽의 이성호 선수, 준우승은 덕포클럽, 우승은 엄공클럽이 차지하였다. 장년부의 최다득점상은 쾌법클럽의 성기정 선수, 최우수선수상 또한 쾌법클럽의 김종민 선수가 받았으며 삼락클럽이 준우승에 올랐고 대망의 우승은 쾌법클럽이 거머쥐었다. 심판상은 김종수 심판이 받았으며 입장상 3위는 엄공클럽, 2위는 주례1클럽, 1위는 쾌법클럽이 차지하였다.



### 02 사상구청장기 및 사상구 배드민턴협회장기 추계대회 개최

지난 11월 18일(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사상구청장기 및 사상구 배드민턴협회장기 추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13개 클럽, 613명이 참가하였으며 동호인들 간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자리가 되었다. 대회결과 모리클럽과 동주클럽이 공동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3위는 신백양클럽, 2위(협회장기 우승)는 주례클럽 차지하였으며, 1위(구청장기 우승)는 이지스클럽이 차지하였다.



## 구·군체육회 소식

### 03 제13회 사상구 배구협회장기 배구대회 개최

제13회 사상구 배구협회장기 배구대회가 지난 11월 25일(일) 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 10개 클럽, 1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승부를 펼쳤으며 평소 동호인간의 활발한 교류로 이론적 지식과 실전 기술을 서로 나누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우수한 실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경기결과 남자부 1위 어택클럽, 2위 스타클럽, 여자부 1위 백산클럽, 2위 스타클럽, 3위 사상클럽이 차지하였다.



### 01 2018 기장군체육회, 무주군체육회 자매 결연식 및 체육교류

지난 12월 1일(토)부터 2일(일) 양일간 기장월드컵빌리지 인조잔디 B구장 등 5개소에서 4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8 기장군체육회, 무주군체육회 자매 결연식 및 체육교류」를 개최하였다. 이번 결연식 및 교류전을 통해 지역 사회 유대 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02 2018 기장군 체육인의 밤 개최

지난 12월 13일(목) 동양가든에서 기장군체육회 대의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장군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8년도 성과 보고, 유공단체 시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이후 저녁 만찬을 통해 기장군체육회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기장군체육회

## 회원종목단체 소식

### 그라운드골프협회

#### 》 2018 부산광역시배슈퍼컵 그라운드골프대회 결승전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는 지난 11월 3일(토)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18 부산광역시배슈퍼컵 그라운드골프대회 결승전」을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열린 경쟁을 통해 최우수클럽을 가렸다. 경기결과 1위 북구협회, 2위 해운대구협회, 공동 3위 금정구 금샘클럽, 남구협회가 차지하였다.



#### 》 제13회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는 지난 11월 9일(금)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제13회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참가의식이 증대되었으며 동호인 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 경기결과**
- 단체전 \_ 1위 금정구, 금샘클럽, 2위 연제구협회, 3위 사상구협회
  - 개인전 \_ 1위 정동영(부산진구), 2위 김호중(사하구), 3위 공행자(북구)

### 농구협회 》 제21회 부산광역시장배 겸 효성시티병원장배 생활체육농구대회

부산광역시농구협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체육관 및 사직실내보조경기장에서 「제21회 부산광역시장배 겸 효성시티병원장배 생활체육농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클럽부, 40대부, 2부클럽부 선수 및 농구 동호인 4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대회를 통해 농구 동호인 간 선의의 경쟁과 더불어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대회가 되었다.



- 경기결과**
- 클럽부 \_ 우승 : 공조, 준우승 : 벨로시티
  - 40대부 \_ 우승 : 팀스웍, 준우승 : 스포츠아트
  - 2부클럽부 \_ 우승 : 로얄, 준우승 : 시국선언
  - 최우수선수상 \_ 공조 : 김동규, 팀스웍 : 옥상민, 로얄 : 한지훈

### 체조협회 》 제3회 부산시체조협회장배 생활체조 경연대회

부산광역시체조협회는 지난 12월 8일(토) 부산여자대학교 다촌문화관에서 「제3회 부산광역시체조협회장배 생활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체조경연대회는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꾀하고, 생활체조 동호인 저변 확대, 구군 체조협회의 화합과 우호증진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경연대회에는 16개 구군 체조협회 회원 1,2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경기부문은 생활건강체조(에어로빅, 맨손체조, 기구체조, 태권체조 등), 생활댄스체조(힙합, 스트릿댄스, 방송, 줌바, 치어, 창작, 재즈댄스 등), 민속춤 체조, 수련체조(요가, 필라테스, 선, 기공, 스트레칭 등), 발리댄스체조 등 5개 부문에 모두 74개 팀이 참가하였다.



## 회원종목단체 소식

### 합기도중앙협회 》 제19회 부산광역시합기도중앙협회장기 대회

부산광역시합기도중앙협회는 지난 12월 12일(수) 연제구국민체육 체육관에서 450여 명의 동호인 및 선수들을 대상으로 「제19회 부산광역시합기도중앙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체육활동의 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선수-동호인의 친목도모 및 합기도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이 되었다. 대회결과 종합1위 제일합기도분관, 종합2위 정관제일합기도, 종합3위 오션제일합기도가 차지하였다.



### 피구연맹 》 2018 부산광역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겸 제1회 부산광역시피구연맹회장기 피구대회

부산광역시피구연맹은 지난 12월 15일(토)부터 16일(일)까지 양일간 부산진구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2018 부산광역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겸 제1회 부산광역시피구연맹회장기 피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초, 중, 고 1,000여 명의 학생과 2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하여 토너먼트, 리그경기를 진행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도 대거 참가하여 열띤 응원을 펼쳤으며, 부산광역시피구연맹의 대회 규모가 나날이 커짐에 따라 전국 각지의 심판들이 참가하여 대회 수준을 한층 높여주기도 하였다. 김금수 대한피구연맹 심판위원장은 “나날이 발전하는 부산의 피구 사랑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스포츠정신을 배우고 나아가 전국대회에서도 부산광역시피구연맹의 최고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초등부			중고등부		
구분	여자부	남자부	구분	여자부	
1위	오션초등학교	오션초등학교	1위	거제여자중학교	성모여자고등학교
2위	양운초등학교	당평초등학교	2위	신덕중학교	동주여자고등학교
공동3위	알로시오초등학교	양운초등학교	공동3위	연일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금곡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동평여자중학교	대덕여자고등학교

#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소식

부산광역시 거점스포츠클럽

## 01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상황 보고회 개최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지난 11월 19일(수) 사직 아시아드 뷔페에서 운영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거점스포츠클럽 임직원, 클럽회원, 전문선수, 자원봉사자 등 250명이 참석하였으며 2018년을 되돌아보며 성과보고와 2019년 운영방침을 설명하고 회원들과의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며 소통하였다. 이날은 특별한 행사가 더해졌다. 클럽회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한 거점스포츠클럽 자원봉사단 발대식도 같이 거행되었으며, 부산관광공사 사장(정희준)을 초청하여 스포츠 활동이 인성함양과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로 특강도 진행되었다.



## 02 거점스포츠클럽 선수육성반 스포츠멘탈트레이닝 개최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지난 12월 10일(월) 부산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선수육성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멘탈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스포츠멘탈트레이닝은 대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감 회복, 슬럼프 극복방법, 팀워크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박광진 교수(스포츠심리상담사)를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거점스포츠클럽은 테니스, 역도, 체조, 펜싱 4종목에서 엘리트 선수 39명을 육성하고 있다.



## 03 거점스포츠클럽 체조, 펜싱 전지훈련 실시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체조, 펜싱 선수육성반 선수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체조는 11월 27일(화)부터 12월 1일(토)까지 5일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2019년 소년체육대회에 선발전수로 참가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펜싱부 선수 8명은 지난 12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5일간 서울 신수중학교, 신수아카데미에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01 2018년 3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11월 8일(목) 동래구국민체육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년 3분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실적 보고 및 동래스포츠클럽 운영규정 제정, 취업 규칙 개정, 이용규정 변경 및 직원 근무형태 변경, 운영위원 해촉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소식

부산진구스포츠클럽

## 02 공공스포츠클럽 스타 서포터즈 수업 운영

동래스포츠클럽은 지난 11월 27일(화) 동래스포츠클럽 3층 다목적실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스타 서포터즈 수업'을 운영하였다. 이번 수업은 이정용 서포터즈의 신나는 댄스교실이 운영되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운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운동 습관화의 중요성과 생활 속에서 즐겁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었다.



## 03 거점스포츠클럽 수영 선수육성반 강습회 참가

지난 12월 16일(일) 사직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된 '거점스포츠클럽 수영 선수육성반 강습회'에 동래스포츠클럽 돌고래 수영선수반 30명이 참가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선수육성반 강습회는 부산지역 내 7개 스포츠클럽이 참가하였으며, 스포츠클럽 선수들과 즐거운 교류의 시간과 더불어 실력 향상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 01 부산진구스포츠클럽 배드민턴 교류전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난 12월 8일(토) 부산진구스포츠클럽 다목적 실내경기장에서 동구스포츠클럽과 '부산진구스포츠클럽 배드민턴 교류전'을 개최하였다. 이날 경기에서는 부산진구스포츠클럽과 동구스포츠클럽이 화려한 기술을 교류하였다. 선수들은 승부에 상관없이 서로의 기량을 겨루어 보고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상대팀의 득점, 동료의 실점에도 서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훈훈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번 교류전에 참가한 동호인들은 "경쟁보다는 한 수 배우는 마음이짐으로 경기에 임하니 더욱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으며 더불어 실력도 나날이 늘 것 같다."며 "앞으로도 클럽 간 교류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02 부산진구스포츠클럽 농구클럽 교류전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난 12월 9일(일) 부산진구스포츠클럽 다목적 실내경기장에서 '부산진구스포츠클럽 농구클럽 교류전'을 개최하였다. 이날 교류전에 참가한 각 팀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선수들의 젊은 패기와 응원단의 열띤 함성이 대회를 가득 메웠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 관계자는 "평소 농구 동호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라는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친목도모 성격의 교류전이 활발해진다면 농구 동호인 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 겨울이 더 괴로운 수족냉증 원인과 치료는?

찬바람이 뽀뽀 부는 겨울은 물론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에도 손발이 시려 괴로운 이들이 있다. 흔히 수족냉증이라고 하는데 체형이 마르거나 여성인 경우에서 더 흔하다. 어느 과를 가야할지 모호하니 민간요법이나 유사의학을 전전하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수족냉증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 수족냉증, '병명'이 아닌 '증상'일 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수족냉증은 손발이 시린 증세일 뿐, 병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병명과 증상을 혼동해서 헷갈음을 한다.

예를 들면, 어지럼증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고, 원인이 되는 병명은 빈혈, 부정맥, 이석증 등인 것이다. 두통 역시 증상이며 병명(진단명)은 대상포진, 뇌종양, 뇌출혈 등이 된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런 진단을 내릴 기술이나 지식이 없었기에 증상에 따라 경험적인 치료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현대 의학은 수족냉증의 다

양한 원인 질병을 밝혀내었고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면 원치나 만족스러운 치료가 가능하다.

## 수족냉증의 다양한 원인들

추위에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처음에는 손끝이 하얗게 되고 파랗게 변하다가 나중에는 혈관의 확장 작용에 의하여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면서 소양감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를 '레이노 현상'이라고 한다. 레이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는 갑상선저하증, 손목터널증후군, 류마티스성 혈관염,

추간관 탈출증, 말초신경염 등이 있다. 몇 가지 검사를 통해 이런 병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비로소 레이노병이라는 진단을 붙이게 된다. 레이노병은 발병 원인은 모르지만 질병의 경과나 위험요인 등이 알려져 있고 약물치료로 증세를 훌륭히 조절할 수 있는 병이다.

## 수족냉증의 진단과정

갑상선호르몬이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추위를 많이 느끼며 수족냉증이 심해진다. 이는 간단한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 병이다. 경추나 요추의 추간관 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 손목터널증후군 등의 초기 증세로 손발 저림과 시림이 올 수 있고 이 역시 의사의 진찰과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혈관의 동맥경화 때문에 말초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면 비슷한 증상을 일으킨다. 드물긴 하지만 류마티스성 혈관염 등도 원인일 수 있는데 이런 병들 역시 혈액검사와 도플러 초음파, 혈관조영 CT 등을 통해 감별해야 한다. 수족냉증을 증상으로 동반하는 다른 질병을 감별하기 위해 의심되는 질병에 해당되는 검사들을 시행한다. 기본적인 혈액검사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갑상선 기능 검사나 신경전도, 근전도 등의 특수 검사도 필요할 수 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 환자가 발작 상태라면 진단하기가 더 쉽다. 1차성의 경우 증상이 없을 때에는 맥박을 비롯한 이학적 소견상 특이 소견이 없기 때문이다. 진단을 위한 특별한 검사법은 없지만, 관련된 원인을 배제하기 위한 진찰과 임상 검사는 필요하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감별을 위해 틴넬(Tinel) 징후와 팔렌(Phalen) 검사를 시행하거나 근전도 검사가 필요하기도 하다. 한랭부하검사는 4~6℃ 냉수에 2분 정도 양손이나 양발을 담근 후 피부 온도측정계나 적외선 체열 측정기에 의해 피부 온도의 회복 과정이나 혈류계측기를 이용해서 관찰한다. 그 외 손목을 지나가는 신경이 염증 등으로 인해

압박되어 나타나는 손목터널 증후군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갱년기 증상 등도 감별해야 할 질병에 속한다.

## 레이노병의 치료

레이노병으로 진단되면 전문 약물치료로 증세를 많이 호전시킬 수 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적인 혈액순환용제의 효과는 불확실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을 것을 권한다. 평상시 손발 뿐 아니라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낫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손발을 따뜻하게 보온할 수 있는 장갑이나 두터운 양말, 부츠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장갑을 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현관문 앞에 여분의 장갑을 두는 것이 좋다. 거리를 걸을 때에는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걷도록 한다.

집은 언제나 따뜻하게 보온이 되어야 한다. 세수나 설거지 등을 할 때에는 찬물을 사용하지 말고 따뜻한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반신욕, 족욕 등도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손을 담갔을 때 너무 뜨겁지 않은 38~40℃ 온도로 자주 목욕을 하거나 목욕이 어렵다면 매일 뜨거운 물에 손발을 담가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면 좋다. 근력운동이나 심폐운동을 통해 근육량과 심폐기능을 키우면 기초대사량이 늘어 체온이 상승한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하며 손발이 딱 조이는 의류는 피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특히,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고지방의 음식은 많이 먹지 않으며,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어류나 식물성 지방을 주로 섭취하도록 한다. 10% 정도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완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릴 필요는 없고 긍정적인 자세로 느긋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 올림픽을 위한 「제30기 KSOC 올림픽아카데미」 개최

대한체육회는 11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에서 올림픽을 보급을 위해 “제30기 KSOC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을 개최하였다.

이번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에는 체육단체 직원, 대학생, 일반인 등 110여 명이 참가하여 “올림픽 유산과 올림픽 운동”을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유산과 관련한 강의를 비롯하여, 올림픽 운동의 국내 확산을 위한 전문 강사 특강과 참가자 분임 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교육과정은 하응용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올림픽의 역사와 올림픽즘” 특강에 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신소정 전 국가대표 선수가 여자아이스하키 최초 올림픽 참가 경험과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산, 롤모델로서 올림픽 운동선수, 올림픽을 확산을 위한 KSOC의 역할 등 올림픽대회와 관련된 다양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체육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출처 : 대한체육회



1

2

## 「제1회 IOC 선수경력프로그램(ACP) 워크숍」 개최

대한체육회는 유승민 IOC위원과 함께 11월 23일(금) 서울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에서 제1회 IOC 선수경력프로그램(ACP)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운동선수의 성공적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워크숍은 유승민 IOC위원이 국내 최초로 IOC ACP 워크숍 강사자격을 획득하며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홍석만 IPC위원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했던 전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40여 명의 현역·퇴직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에서 운동선수로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진로 고민을 나누고, 각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유승민 위원은 이번 워크숍을 위해 운동선수로서 경력에 대해 고민을 했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방법, 운동선수로서 강점 활용 전략, 인적 네트워크 개발 방법 등 운동선수의 경력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의를 하였다. 강의 후에는 아데코 코리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설명 및 면접 실습 등이 이어졌다.

출처 : 대한체육회

※IOC선수경력프로그램(ACP, Athlete Career Program)이란 운동선수의 성공적인 경력전환 지원을 위해 IOC에서 아데코(Adecco, 세계 최대의 종합 인력 서비스 회사)와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은퇴를 앞둔 운동선수에게 교육, 고용, 생활 능력의 세 가지 핵심 주제로 교육하며, ACP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하여 IOC 선수위원회, 올림픽언, 고용전문가 등을 통해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시도·시군구체육회 워크숍 개최



대한체육회는 11월 29일(목)부터 30(금)일까지 양일간 경기 여주시 남한강썬밸리호텔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시도·시군구체육회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임직원을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임직원 등 33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특히 투명한 행정문화 지칭 전파를 위한 청렴교육, 기금사업 정산 강의, 스트레스 관리법 등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임직원들의 개인역량 향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대한체육회와 시도·시군구체육회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거듭났다. 대한체육회장은 풀뿌리 체육의 근간인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우수선수 발굴, 꿈나무선수 육성 등에 힘써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대한체육회

## 2018 학교체육진흥포럼 개최

대한체육회는 12월 11일(화) 14시 30분에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18 학교체육진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30 스포츠비전과 학교체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교체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은 류태호 고려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 ‘신나는’ 학교 스포츠 ▲ ‘함께하는’ 학교 스포츠 ▲ ‘자랑스러운’ 학교 스포츠 등 발제 3건,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충남대학교 이주욱 교수는 ‘모두를 품은 신나는 학교 스포츠’라는 제목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학교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기 스포츠 경험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함께하는 스포츠’의 발제는 인하대학교 권민정 교수가 연사로 나서며, 학교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모델과 전략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서울체육중학교 오정훈 교감은 ‘자랑스러운’ 학교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과정·소통 중심의 스포츠 참가(공정),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시스템 구축(도전적), 직업 중심의 체육진로교육(생산적)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발제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학교체육진흥포럼을 통해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학교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출처 : 대한체육회

# 5

## 남북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ANOC 시상식(Awards) 2018’ 수상

남북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일국 북한 체육상,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12월 28일(목)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연합회(ANOC, 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시상식(Awards) 2018」에서 단일팀 구성을 통하여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공로로 ‘스포츠를 통한 희망 고취상(The Inspiring Hope through Sport Awards)’을 수상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제23회 ANOC 총회 첫날 206개국 NOC 대표를 포함하여 선수, 국제연맹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남북 선수대표로 박종아 선수, 김은향 선수가 참가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스포츠 분야에 크게 기여한 스포츠인에게 수여하는 ‘특별공로상(Outstanding Performance Awards)’을 받기도 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시상식(Awards)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통해 평화 증진에 기여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일국 북한 체육상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ANOC 시상식(Awards)는 올림픽 운동에 기여한 선수 및 NOC를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희망 고취상을 포함하여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NOC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출처 : 대한체육회



# SNOW BOARD

## 겨울 스포츠의 계절이 돌아왔다!

1년을 기다렸다. 은빛 설원을 질주하며 스피드를 즐기는 스키와 스노보드의 계절이 또다시 돌아왔다. 짜릿한 속도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눈꽃과 함께 피어오르는 낭만을 즐겨보기 위해 이 겨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몸은 비록 일상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설원으로 떠나 버린 당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겨울 한철 시원하게 날려보자.



# SKI SPORTS



### 놀이가 아닌 교통수단으로 시작된 스키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흰 눈이 펄펄 쏟아질수록 가슴 설레는 이들이 있다. 바로 겨울 스포츠의 매력에 푹 빠진 마니아들이다. 2018-2019 스키 시즌을 맞아 알록달록 원색 복장의 스키어와 스노보더들로 화려하게 변신한 전국의 스키장들은 저마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키를 언제부터 즐겨왔을까? 스키는 이미 오랜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스키는 지금부터 4~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스키의 용도는 주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의 목적도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사냥을 하고 전쟁을 수행했으므로 설원의 나라에서는 제2의 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스키는 오늘날 볼 수 있는 스키의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즉, 스키를 발에 단단히 고정할 수 없었으므로 점프나 턴과 같은 기술을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스키가 근대적인 스포츠로 발달하게 된 데에는 스키를 얼마나 단단하게 신발과 결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바인딩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달려있었다.

1721년 노르웨이 군대 내에 스키 제조공장이 설립되어 발뒤꿈치를 단단히 묶을 수 있도록 가죽끈을 고안하였으나 오늘날의 바인딩처럼 스키를 완전히 고정할 수는 없었다. 1742년 군대가 스키부대를 편성하게 된 후부터 활기를 되찾아 스키경기로 발전하였고, 그 뒤 왕실이 스키경기에서의 승자를 표창하였기 때문에 더욱 융성하여 국가적 스포츠가 되었다. 1877년에는 크리스치니아(현재의 Oslo)에 스키클럽이 생겼고, 2년 후에는 하스비힐에서 제1회 점프대회가 개최되었다.

### 바인딩 개발로 스포츠로 자리매김

1893년에는 프리츠 푸트펠트 바인딩이 고안됨으로써 겨울철 교통용구에서 스포츠로서의 근대스키로 비약하였다.

9세기 후반에 오스트리아 짜르스키(M. Zdarsky)는 1888년 노르웨이의 난센이스키를 타고 그린란드를 횡단하자 여기에 용기를 얻어 쇠로 된 바인딩을 고안하였고, 수년에 걸쳐 독자적으로 스키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알파인스키기술이란 책도 저술하는 등 알파인스키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1904년 스위스와 1905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스키 클럽이 생겼는데 1911년에 짜르스키의 제자였던 레루(T.Lerch) 장군이 일본에 스키를 전했다.



알프스 산악지방에서 발전한 알파인 스키  
Alpine Skiing

근대 스키를 정립한 오스트리아의 슈나이더(H.Schneoder)는 알파인기술을 체계화 하였으며 알파인이란 이름도 그가 태어난 지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늘날 알파인 스키기술의 아버지로 불린다. 국제스키 경기는 1924년 국제스키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Ski; F.I.S)이 창설된 후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린 제1회 동계올림픽대회에 크로스컨트리 스키경기와 점프스키 경기가 실시되었다. 1936년 독일에서 개최된 제4회 올림픽대회에서는 활강경기와 회전경기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오늘날까지 실시되고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스노보드  
Snowboarding

최근 스키 못지않게 각광받고 있는 스노보드는 미국 산악 지방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1960년대 미국에서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당시 스누퍼라 하여 모노스키와 함께 서핑을 스키에 접목시켜보려는 노력에 의해 생겨났으며, 필드도 자연 그대로의 파우더 스노를 서핑 하듯이 즐겼다.

초기에는 합판 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기도 하고, 서핑과 같이 방향성 있는 핀이 달려 있기도 하는 등 그 소재와 모양도 가지각색이었으며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며 보급이 확대된 시기는 1979년 이후부터였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로 발전되었으며, 최근 눈부신 소재 개발과 테크닉의 향상으로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스노보드는 삭막한 도심과 빌딩을 떠나 눈 위에서 미끄러지는 쾌감을 만끽하기에 그만인 스포츠이다. 또한, 인라인보드와 비슷하나 슬로프를 타는 스티일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스키처럼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

**TIP** 스키&스노보드  
안전하게 즐기는 법

스키장이 개장하면서 본격 겨울 스포츠 시즌을 맞이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가파른 설원 위를 달리거나 빙판 위에서 스피드를 즐기려다 충돌이나 낙상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키는 하체 부상이 많고 스노보드는 상체 부상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의 한 스포츠의학 저널에 의하면, 스키는 무릎(33%), 손바닥(6.6%), 어깨(6.4%) 순서로 부상 유형이 많았고, 스노보드는 손목(20.4%), 어깨(11.7%), 발목(6.2%) 순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체의 움직임이 많고 회전이 많은 스키의 특성상 하체, 특히 무릎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스노보드는 두 발이 보드에 고정되어 안정적이지만 폴대가 없어 넘어지면 손을 포함한 상체 부상의 위험이 큰 것이다. 스노보드의 경우 리프트 탑승 때 안전상 한 발을 장비에서 분리해야 한다. 정상에 도착해 내리는 과정에서 제어와 조정이 쉽지 않아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이외에도 특히 초보자들은 서두르지 말고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스키어 또는 스노보더와의 충돌사고를 피해야 한다.

또 하나! 스키장은 기온이 낮으므로 이를 위한 한랭 질환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상 예방을 위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방한 기능이 뛰어난 옷을 갖춰야 한다.

**SKI & SNOW BOARD**





# 스키 영화

## SKI



### 독수리 에디(Eddie the Eagle, 2016)

감독 맥스터 플레처 | 출연 태런 에저튼, 휴 잭맨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영국인 최초의 스키점프 선수로 활약한 에디 에드워즈의 실화를 다룬 영화. 실력이 부족한 선수와 비운의 천재 코치라는 다소 뻔한 스토리지만, 1등이 되기까지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여느 스포츠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간다.

영국 스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 '에디'. 그는 동계올림픽대회 참가에 대한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키점프' 선수가 되기로 결심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상처뿐이다.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 한 채 무작정 독일의 스키 점프 훈련장으로 떠난 그는 그곳에서 반항적인 성격으로 미국 국가대표 선수에서 퇴출된 천재 스키점프 선수 '브론슨'을 우연히 만난다. 과연 그들은 편견과 비웃음을 뛰어 넘고, 그들만의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

### 국가대표(Take Off, 2009)

감독 김용화 | 출연 하정우, 성동일

1996년 전라북도 무주,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 정식종목 중 하나인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급조된다. 이에 전(前) 어린이 스키교실 강사 방종삼이 국가대표 코치로 임명되고, 그의 온갖 감언이설에 정예(?) 멤버들이 모인다. 엄마를 찾기 위해 한국을 찾은 스키 선수 출신인 해외 입양아 '밥'을 시작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동생 때문에 군 면제를 위해 국가대표가 되려는 '강철구', 거기다 되는대로 살아온 '최홍철'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온 '마재복'까지. 오합지졸 네 명이 스키점프 국가대표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팀이 되어 가는데...

스키점프가 뭔지도 모르지만 한때 스키 좀 타봤다는 이유로 뽑힌 이들이 모여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결성된다. 그러나 스키점프(Ski Jump)의 스펠링도 모르는 코치와 경험 전무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은 험난하기만 하다. 이들은 과연 하늘을 날 수 있을까?



# 스노보드 영화

## SNOWBOARD

### 익스트림 OPS(Extreme Ops, 2002)

감독 크리스찬 두가이 | 출연 데본 사와, 브리짓 윌슨

세계 최고 수준의 익스트림 스포츠 전문가들이 한 편의 CF 제작을 위해 모여든다. 웬만한 모험은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이번에 할 일은 실제 눈사태 현장에서 스키를 타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 완벽한 장소를 찾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향한 그들은 헬기를 타야만 찾아갈 수 있는 산 정상에 리조트를 찾아간다. 채 완공도 되지 않아 인적조차 드문 그곳, 하지만 거기엔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 '파블로프'가 은신해 있다.

카메라를 들고 설치던 일행은 우연히 파블로프를 찍게 되고, 이 사실을 안 파블로프는 이들을 CIA로 착각하고 공격을 시작한다. 영문도 모른 채 쫓기기 시작하는 일행들.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에게 헬기와 기관총이 있다면 이들에겐 스키와 보드가 있다. 가파른 설원과 협곡이 가득한 곳이라면 이들이 오히려 CIA보다 한 수 위다. 오직 스피드 하나만으로 싸워야 하는 일행들과 사력을 다해 그들을 뒤쫓는 테러리스트들. 이제 설원을 누비는 이들의 숨막히는 '익스트림 액션'이 시작된다.

### 샬레이 걸(Chalet Girl, 2011)

감독 필 트라이 | 출연 에드 웨스트윅, 펠리시티 존스

17세 어린 나이에 스케이팅보딩 챔피언에 오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김.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차 사고로 엄마를 잃게 된다. 그 후 그녀는 보더의 삶을 접고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다.

그러다 우연찮게 얻은 기회로 알프스 스키 샬레에서 케이터링을 하는 자리를 얻게 되고, 김은 고급스러운 사람들, 빈티지 샴페인, 웅장한 산맥과 허리까지 오는 깊은 눈 등 새로운 환경에 어리둥절해 한다. 그러던 중 김은 스노보딩을 발견하게 되고, 그녀는 기존의 재능을 바탕으로 엄청난 상금을 탈 수 있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에 몰두하게 된다.

챔피언이 되기에 앞서 김은 그녀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맞서야 하며, 상관의 아들이자 애인까지 있는 조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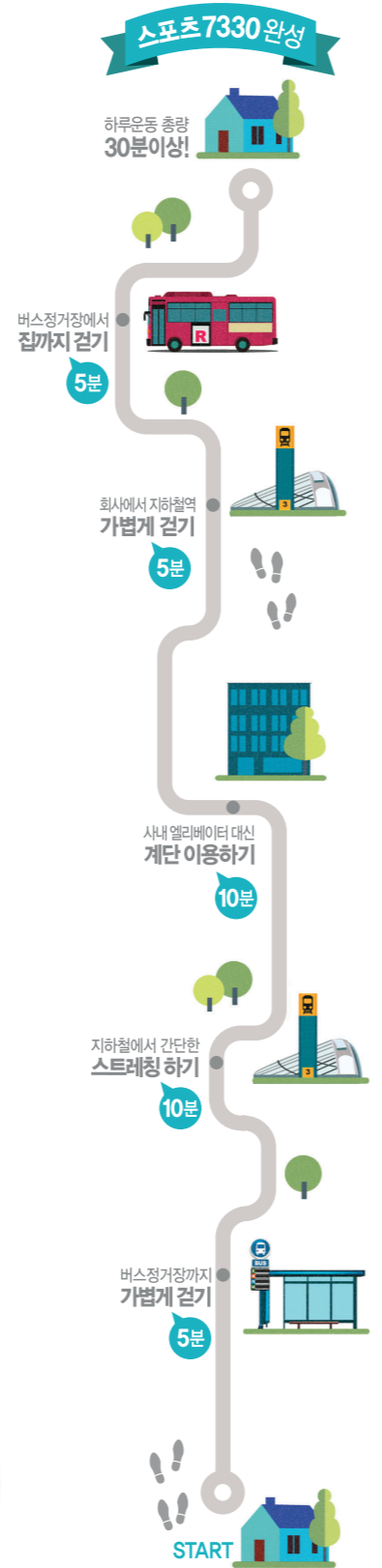


일상속

# 운동실천법 스포츠7330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 매일 조금씩, 스포츠 7330으로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씩! 대한민국이 건강해 집니다.

Let's walk together!



##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나의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스포츠복지지원에서 스포츠산업육성까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만듭니다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지금은 퇴근 후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지금은 나에게 맞는 운동처방 받는 시간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

지금은 주말아침 주민들과 운동하는 시간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

지금은 방과 후 스포츠를 배우는 시간  
|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